

“5-8세를 위한 문학놀이 개발
: 작은도서관에서 활용 가능한 그림책과 연극 기반의
프로그램”

Hey, Hi

목 차

서론

탐사 주제 및 목표

팀 구성 계기 및 탐사 주제 선정 배경

탐사 배경 및 논의의 필요성

탐사 사전 준비

본론

탐사주제 관련 기존 문헌 연구

– 기존 논의 요약 및 정리

– 기존 연구의 한계점

– 학생들의 연구를 통해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점

탐사주제 연구 방법 제시

–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필요성

–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탐사주제 관련 탐사 내용 정리

– 국내 탐사 내용 정리

– 국내 전문가 인터뷰 내용 정리

– 해외 탐사 내용 정리

– 해외 전문가 인터뷰 내용 정리

결론

탐사주제의 핵심 내용 요약

연구의 의의

후속 연구 방향 제시

- 프로그램 기획안
- 기대 효과 및 제언

참고문헌

I. 서론

i. 탐사 주제 및 목표

탐사 주제	5-8세를 위한 문학놀이 개발 : 작은도서관에서 활용 가능한 그림책과 연극 기반의 프로그램
----------	---

팀 헤이하이에서 해외탐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

- 1) 도서관의 역할과 의미 재고
- 2)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 3) 아동 연극놀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탐구
- 4) 미래에 작은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문학치료’의 개념만으로는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1) 아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 2) ‘문학치료’라는 말이 이를 사용하는 이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온다는 점
- 3) ‘작은도서관’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치료’라 명명내릴 경우 작은도서관의 공간적 역할이 모호해진다는 점
- 4) ‘문학치료’는 치료의 대상자가 그것이 치료임을 몰라야 더욱 효과적인데 프로그램의 이름이 ‘치료’일 경우 명시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 5)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어휘 ‘놀이’가 있다는 점

6) ‘문학치료’는 고유명사로 문학의 서사와 자기(내담자)의 서사를 ‘구조적 측면’에서 일치함을 포착하여 내담자가 스스로의 서사를 마주하고 새로운 서사를 구축하여 문학적으로 치유받는 것을 일컫는 것인데 ‘헤이하이’가 추구하는 프로그램은 고유명사의 정의를 다소 역행하는 점

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문학놀이’ 활동을 개발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ii. 팀 구성 계기 및 탐사 주제 선정 배경

본 팀의 팀원들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연극동아리 ‘총연극회’에서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4번의 공연을 함께 만들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여 2022년 가을 <타조소년들>, 2023년 봄 <소원사 도깨비 업무일지>, 2023년 가을 정기공연 <고등어> 총 3번의 공연을 올렸다. 극의 주인공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나이대의 입장이 되어 많은 상상적 상황을 경험하고 취재하였다. ‘깨어있는 연극을 위하여’는 총연극회의 공식 기조이다. 아동, 청소년의 이야기를 ‘깨어있는 연극’으로 전달하기 위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필요했고 여러 작품을 통해 다각도로 살펴본 끝에 그 세상이 결코 녹록치 않음에 모두가 공감하였다.

세 작품 중 <소원사 도깨비 업무일지>는 팀원 안해인의 창작 작품으로 아동의 스쿨존 교통사고 문제를 소재로하여 직접 극본을 쓰고 연출한 극이다. 이 연극을 준비하는 동안 어른들의 시선에서 고려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비가시화되는 아동들에게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은 무엇인지,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했다. 정책적인 제언보다 팀원들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했다.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서도 연극이라는 문학적 텍스트를 매체로 협동하는 과정 속에서 문학의 치유적 힘을 실감한 것을 바탕으로 두었다. 경험적 자산을 활용하여 아동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본 팀은 ‘아동과 청소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팀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들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 최종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관심 + 연극의 치유적인 힘에 대한 실감 +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팀을 꾸리게 되었다.



<사진1. 이화여자대학교 총연극회 2022년 가을, 2023년 봄, 2023년 가을 정기공연 포스터>

iii. 탐사 배경 및 논의의 필요성

1) 문학치료의 정의

‘문학치료’는 말 그대로 문학의 힘을 활용하여 인간 심리에 접근하는 심리치료의 한 영역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미술, 음악, 동작 등 다양한 치료적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한다. 사람들은 문학을 통해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표출하거나 해소하기도 하고 즐거움과 깨달음을 통하여 정서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도 한다. 이에 더해 문학놀이는 ‘치료’를 목표로하는 것이 아닌 문학 자체를 즐기고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를 뜻한다.

2) 국내 아동 문학치료의 현재 연구 및 실행 동향

우리나라의 문학치료는 2003년 ‘한국문학치료학회’의 출범으로 시작되었다. 20여년간 학술 대회 및 학회지 발간, 문학심리분석상담사 양성 등의 활동을 이어오며 문학치료가 성장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문학 치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며 문학치료학회에서 투고한 논문의 주제를 검토한 결과 ‘구운몽’, ‘작제전 이야기’, ‘단군 이야기’, ‘온달 설화’ 등 설화나 전래동화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지속 가능

한 방법의 문학 치료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문학 치료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일회성의 문학 치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스스로 글을 읽고 쓰는 일에 익숙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팀은 이 점을 아쉽게 생각하여 ‘지속 가능한’ ‘접근 가능성 높은’ ‘보편화 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글을 읽는 것이 서툴러도 참여할 수 있는’ 문학치료 방법을 고안해보기로 하였다. 더불어 고정된 ‘문학치료’의 정의에 얽매이기보다는 본팀만의 ‘문학’의 치유적 힘을 정의하고 보다 포괄적인 ‘놀이’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3) 대상을 만 5세-8세의 아동으로 특정한 이유

문학치료는 아이들을 특정 기준으로 분류하여 획일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환경이나 발달 단계에 관계 없이 아이들이라면 다양한 기법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만 5세-8세’ 아이들에게 주목하였는데,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서툰 아이들에게도 문학 치료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림책’에서 가능성을 찾았다.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고도의 언어적 표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림에 나타나는 은유와 상징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고 올바른 ‘글’에 대한 압박 없이 자유로운 다른 활동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책과 더불어 ‘연극’은 다른 무언가가 되어본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놀이’로 인식되는 활동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적인 마음을 타인의 삶을 빌려 분출하고 무대 위의 다른 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과정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아 형성과 발달이 중요한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도구이다.

4) 작은도서관을 활용하고자 한 이유

작은도서관은 이름만 두고 비단 규모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작은도서관이 설립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작은도서관의 공간적, 위치적 특성 및 사회적 의의

: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은 특별한 역사성을 가진다. 199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공립도서관 수가 아주 적었다. (약 320여관으로, 도서관 환경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거지역에서도 먼 곳에 위치해 있었다.) 작은도서관은 이러한 부족한 도

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책이 아닌 시민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마을을 단위로 하여 시작된 풀뿌리 시민운동이자 대안공동체 운동에서부터 비롯하였다. 즉, ‘운동’과 ‘정신’에 의미를 부여하여 ‘작은’도서관이 된 것이다.

‘작은도서관’이란 국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소재하여 누구나 지식정보 및 생활, 문화서비스의 혜택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고 빌려가는 딱딱한 공간이 아닌, 문화인으로서 책을 읽는 것이 하나의 놀이로 느껴지는 즐거운 독서의 놀이터인 것이며,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위한 휴식공간이면서도 지역주민이 모여 소모임을 만들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문화공간이다.

: 작은도서관은 다른 큰 도서관들에 비해 공간도, 조직의 규모도 크지 않아서 공립에서 만들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었고, 그것의 확산에까지 기여했다.

: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립도서관 사이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의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 어르신, 임산부, 아기들 같은 보행권이 약한 약자들에게도 열려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문턱이 낮은 곳이 작은 도서관이다. 간극을 메워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사랑방처럼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며 문화,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며, 도서관 주변의 어린이가 단숨에 달려가 내 집에서처럼 텁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본팀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6,875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그 중 공립은 1,578개, 사립은 5,288개이다. 공립보다 사립 작은도서관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작은도서관’이라 이름붙여지는 기준이 ‘등록’에 있어서 이다.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에 의해 설립되어 그 수가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상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서관인지 의문이 드는 도서관들도 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의 모호성 때문이기도 한데, 아무런 이유 없이 작은도서관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이지만 작은도서관이

목적성을 가진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도 존속의 이유이다.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적극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일에 모두 동의하였다.

: 작은도서관의 위기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08220830011>

<작은도서관이 쪼그라든다> - 경향신문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제1항·제2항은 국가 및 지자체는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작은도서관 예산은 삭감되고 있으며 많은 도서관장들이 자비로 운영비를 보충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이 사라진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열린’공간이 사라진다는 의미와 같다. 이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작은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가진 의미에 모두 동의하였다.

: 작은도서관의 필요성

교통약자들에게 접근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비가시화되는 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다.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구매력이 거의 없는 1인 가구에게

- 1) 독서 및 휴식 공간
- 2) 교육 프로그램 참여
- 3) 문화, 예술 프로그램 참여
- 4) 독서 모임 참여 및 모임 공간 이용
- 5) 컴퓨터와 프린터 등 전자매체 이용
- 6) WIFI이용

7) 흑서기와 흑한기 대피

8) 지역의 복지, 문화, 예술 정보 취득

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고비용의 영유아 대상 문화센터나 도서 서비스의 공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간소한 의사결정 구조와 개인의 창발성을 중시하므로 도서관의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다.

세밀한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으로 자원봉사자 개인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고 그 전문성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다.

iiii. 탐사 사전 준비

기관 연락 과정

국가 도서관 탐색 -> 해당 도서관의 프로그램 및 운영자 연락처 확보 -> 브로셔 제작 -> 프로젝트 소개 및 브로셔 첨부하여 동일 양식으로 컨택 -> 질문지 첨부하여 1주일 전 리마인드 메일 -> 하루 전 리마인드 메일

<각 기관별 질문지 제작>

2024 SUMMER EWAH GLOBAL FRONTIER INTERVIEW QUESTIONS

일시 : 7월 9일 2:00PM	장소 : <u>de Bibliotheek</u> Gelderland Zuid	인터뷰 대상 :	작성자 :
일문	답변	추가질문	
1. Which affiliation does the library belong to?			
2. How the program is organized for children.			
2-1) Space composition 2-2) Activity Topics 2-3) Personnel and the librarian in charge 2-4) Time and duration of activities			
3. Could you introduce a representative program in which children can actively participate?			
4. What do you think how children perceive this place? (Library or place for children)			
5. I'm curious about the library's program composi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Does it follow the guidelines or does it reflect the librarian's autonomy a lot?			
6. How active is the program for kids actually going on? How many children participate in the program in a week?			
7. I am curious about the role of teachers when programs			

for children are implemented. Could you explain the communication method and attitude of communicating with children in the library?		
8. What do you think is the role of libraries in the country?		
9. It was impressive that Netherlands think important about literacy. As we in the middle of media era, many children born in this era are familiar with video media. <u>So</u> they have difficulty with reading, writing, and understanding. In Korea we also have the policy that the government lends books to households with children (0-5 years old) for free and encourages them to do reading activities. But this policy seems to be difficult to advance to improving children's literacy. <u>So</u> it's not common. I know that literacy education in Netherlands was well established. Could you explain how it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conjunction with libraries? And what efforts are being tried for raising awareness about the program and importance of literacy?		
10. I could find that the state provides little financial		

support to public libraries. It seems that the library can be operated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subsidiary business partners. And I wonder how the support is provided for the library. (The budget for small libraries in Korea is currently being cut. And most of the subsidiary are provided by the government. I wonder about how activities and spaces for children can be sustained with limited funding.)		
11. The strong solidarity between schools and libraries seems to be the biggest feature of Netherlands libraries. In fact, cooperation between schools responsible for children's education and socialization and libraries where can support them seems very ideal. In Korea, schools have libraries, but they exist separately from external libraries. And we perceive libraries as inflexible and really formal place. Could you tell me a few things about the background of the de Bibliotheek school program's success and its specific examples?		
12. The word "literacy" has a wide range of meanings. It includes simply knowing vocabulary, context understanding.		

understanding one's intention and the ability to actively choose what to read. What is the concept of literacy that you consider most importantly? And why?		
13. We consider different literacy goals should be set at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Our team is aiming to develop a literacy program for children ages 5-8. What are the literacy goals for children ages 5-8? (If the range is too large, you can answer them separately: 5-6 and 7-8 years old.)		

팀 상징 디자인

로고



소개
책자



Huiwon Kim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leiadessail
@ewha.ac.kr

OUR TOPIC

: Developing a bibliotherapy program
for 5 to 8 years old children using picture books



Hane Ahn
International Office
Administration
hanell10@ewha.ac.kr

Contact Us
Instagram
@heyhi_frontier
Email
heyhi202404@gmail.com



이화여자대학교
EWHHA WOMANS UNIVERSITY
EWHA GLOBAL FRONTIER
A short-term overseas exploratory program
Students independently select a topic
and plan for exploration in te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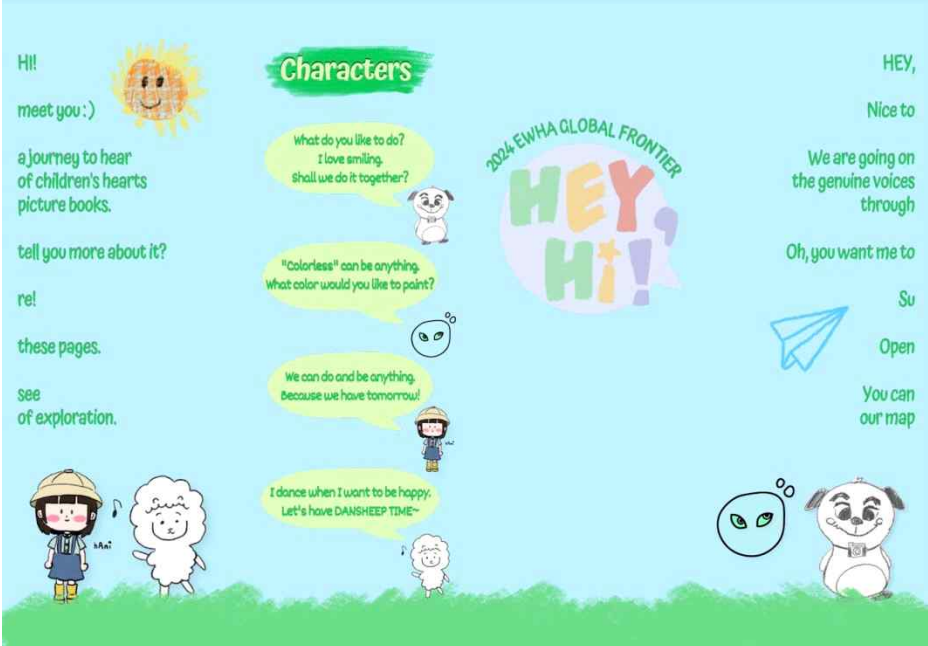
Haeun Jo
Communication
and Media Studies
hnee@ewha.ac.kr

HEY, HI Program is...

1. applicable to children aged 5-8 who have not fully developed their linguistic expression abilities
2. accessible to all children by partnering with local libraries, regardless of their socioeconomic backgrounds
3. available for every children who love to enjoy various activities in comfortable place



Hyuna Cho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na1066@ewha.ac.kr



책자는 그림책 형식을 본떠 책처럼 넘길 수 있게 만들었고 팀원 각자의 그림책 주인공이
탐사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수막	 EWHA WOMANS UNIVERSITY 2024학년도 하계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 2024 Summer EWHA Global Frontier TEAM HEY, HI! 2024.07.07-07.19
명함	 Ewha Womans University Global Frontier, Team <Hey, Hi!> Huiwon Kim (Juno) Hane Ahn Haeun Cho (Hani) Hyuna Cho 김희원 안해인 조하은 조현아 E-mail: heyhi202404@gmail.com Instagram: @heyhi_frontier
명찰	 HANi Ewha Global Frontier TEAM HEY, HI !  JUNO Ewha Global Frontier TEAM HEY, HI !  Hyuna Cho Ewha Global Frontier TEAM HEY, HI !  Hane Ahn Ewha Global Frontier TEAM HEY, HI !

‘그림책’을 소재로 한 팀의 정체성을 담아 팀원 각자 스스로의 그림책 주인공을 만들어 명찰을 제작하였다.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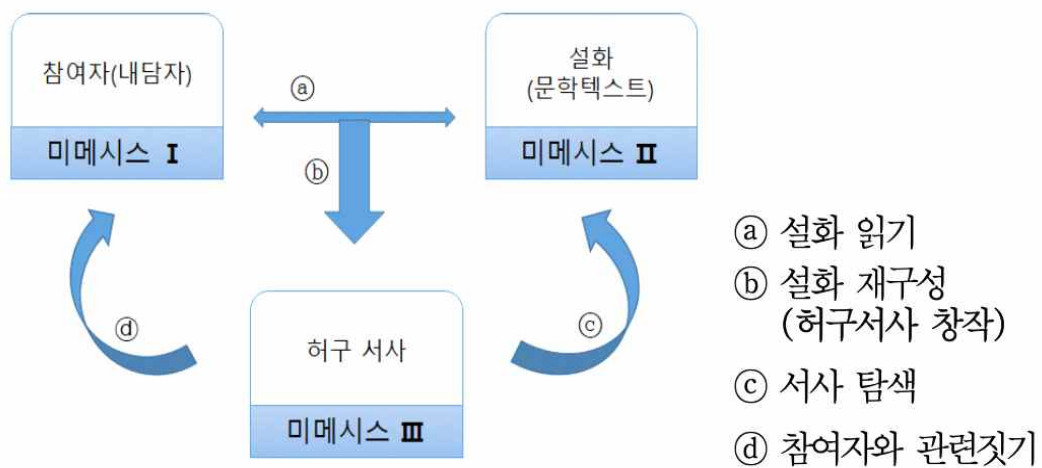
a. 관련 기존 문헌 연구

i. 기존 논의 요약 및 정리

문헌 연구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했었고, 이에 따라 첫째, ‘문학치료’에 대해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이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공간으로 선택된 ‘작은도서관’에 대한 것이 두번째 분류가 되었고, 이후 문헌연구를 비롯한 전문가 인터뷰 등의 국내탐사를 다양하게 진행하며 프로그램의 큰 틀을 연극으로 잡게 되어, 추가로 ‘연극놀이’에 대한 세번째 분류의 문헌 연구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 문학치료

문학치료는 궁극적으로 ‘이야기 만들기’의 과정이다.



[그림 1] 이야기 만들기의 원리와 구조ⁱ

ⁱ 조은상. (2020). 문학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개인문학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57(0), 47-82.

우선, 문학치료의 내담자, 즉 문학작품의 독자가 삶에서 이미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간 행동에 대한 ‘전-이해’가 선행되어 있다고 본다. 문학치료에서의 ‘전-이해’란, 내담자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만들기에 참여하기 전, 그의 성장환경이나 관계, 경험 등으로 인해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이후 이러한 ‘전-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사건들을 형상화한 텍스트가 존재하게 되며, 문학치료에서 이 텍스트는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설화’에 해당한다. 설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집단적으로 형성된 인간의 보편적 이야기를 서사로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설화가 모방하고 있는 현실은 보편적 삶이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문학치료 연구에서 주로 설화가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문학치료학회의 연구를 살펴보면, 문학치료에 이용되는 텍스트로 <콩쥐팍쥐>, <내 복에 산다>, <아기장수>, <금방울전> 등의 고전 설화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설화’는 참여자의 ‘전-이해’와 이후 참여자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즉 ‘허구 서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문학치료의 참여자가 만들어 내는 ‘허구 서사’는, 참여자의 ‘전-이해’와 그에게 주어진 문학 텍스트인 ‘설화’가 만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자신만의 의미로 현실화 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문학치료 참여자가 가진 ‘전-이해’, 그에게 주어진 문학 텍스트인 ‘설화’, 그 두 가지를 통해 참여자가 새롭게 만들어낸 ‘허구서사’의 세 단계가 바로 문학치료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지역의 중요한 거점이자 커뮤니티역할을 수행한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하나로써, 부족한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시민 의식에서 시작된 움직임인 풀뿌리 독서운동을 기원으로 한다.

이문학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출판 생태계로서 지역 작은도서관의 발전 방안 연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2024)에서 작은도서관의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작은도서관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여건상’ 많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성과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그들의 생활권에 인접한 곳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주택건설 기준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숫자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략)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 질적인 운영 상황 등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본래 취지에 맞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제대로 된 법적 기준이 미비해 혼돈이 생기고, 운영상의 내실을 다지지 못하여 이용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공간이다. 작은도서관은 소규모 조직의 특성상 구성원 간 잦은 상호작용을 통해 민첩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그만큼 유연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점에 비추어 봤을 때, 작은도서관은 비교적 큰 규모의 도서관들보다 더욱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데에 적합한 도서관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미래형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의 교통약자에게 모두 열려있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서관의 형태이다. 작은도서관 없이 큰 규모의 도서관들이 덩성덩성 있는 것보다는, 보행권이 약한 누구라도 짧은 거리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작은도서관은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공론장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잘 갖춰진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구성원들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공간이다.

ii. 기존 연구의 한계점

문학치료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이야기 만들기를 해내는 데에 능숙한 연령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읽고 쓰는 능력

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연령대의 아이들은 이러한 문학치료 연구에서 소외되기 쉬운 것이다.

문학치료가 다른 상담 기법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고 대중화 되지 않은 이유는, 그 절차나 분석 과정 등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문학만큼은, 누구나 삶에서 그것을 통해 치유하고 치유 받을 수 있는 매체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한 기회가 더욱 열려 있고, 그래서 문학이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의 문학치료 연구는 아직 충분히 그렇지 못한 것이 실상이다.

작은도서관의 절대적인 숫자 확보 자체는 문제 없이 이루어졌으나, 사후 관리나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과 그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예산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도서관 운영 및 시설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실정이다.

iii. 학생들의 연구를 통해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점 (연구의 기여)

문학은 글자로 쓰이고 읽히는 것에 국한되는 장르가 아니다. 헤이하이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문학치료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어린 아이들에게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놀이로써 접근하여 이들 또한 문학의 치유적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5-8세 아동은 고전 설화를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이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이 또한 이 나이대의 아동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문학치료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존재하는 치료 기법이다. 이에, 헤이하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문학치료 대신 ‘문학 놀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문학치료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상담자에게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접근성이 낮고 대중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헤이하이의 연구를 통해 개발할 프로그램은 ‘문학 놀이’로서, 놀이적 측면에 더욱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시행자에게도, 대상자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헤이하이는 본 연구와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실질적 활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의 작은도서관은 그 수에 비해 인식이나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작은도서관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서관 예산이 삭감되어 왔으며, 이에 작은도서관들은 현실적인 운영난에 처해 있다. 헤이하이의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에서 시행하게 된다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점점 방치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작은도서관들을 지켜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b. 연구 방법 제시

i.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필요성

국내 탐사를 통해 본 팀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1. 국내의 ‘작은도서관’을 편차 없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
-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공동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활동 마련
- 작은도서관과 자원봉사자들 간의 협력 강화
- ‘도서관’이 주는 딱딱한 인상 탈피 및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의 인식 변화

2. 아이들을 위한 ‘문학놀이’가 보편화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 ‘문학놀이’가 아이들의 발달에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공동체 차원에서 인식
- 학교와 도서관의 협력 강화
- 반드시 ‘문학’, ‘연극놀이’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학놀이가 시행되도록 공간 구성의 변화
- ‘도서관’을 아이들이 방과후에 혼자서도 놀이를 하러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 및 인식시키는 노력

3. 계속해서 악화되는 활자 문해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 ‘책’을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책’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
- 디지털로 보급 가능한 문해력 발달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접근 방식 제공

국내 탐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도서관 문화’와 전국 각지에서 노력중인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프로그램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우리나라의 사례를 견본으로 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을 느꼈다. 우리나라에도 어린이 작업실 ‘모야’나 전주시와 같은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본팀이 지향하는 교육적인 요소보다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차원의 ‘놀이’를 통한 실질적인 문해력 향상이나 독서 접근 방법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탐사함으로써 보다 획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이론이나 텍스트로만 접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며,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은 직접 경험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뒤이어 설명할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딱딱한 장소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일상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사례가 많다. 이러한 변화된 도서관의 역할을 실감하기 위해 해외 도서관 매니저나 아동 프로그램 기획자 등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앞으로 국내 작은 도서관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탐사 국가 선정 계기

탐사 국가로는 ‘네덜란드’와 ‘영국’을 후보로 두었다.

- 네덜란드

프로젝트의 목표를 위해서 구조적이고 상세한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답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만남이 필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독서 환경이 보편화 되어있고 ‘아이들’을 읽기의 주체로 여겨 능동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국가에 방문하고자 하였다.

이에 네덜란드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독서 경험을 장려하는 지도 국가이며 도서관이 아이들의 악화되는 문해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각별히 여겨 현지조사 국가로 선정하였다. 네덜란드는 본팀의 목표를 위해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국가임에 모두가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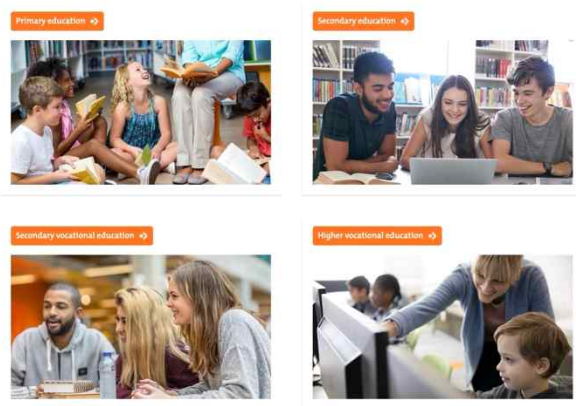
다음은 네덜란드를 탐사 국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이다.

네덜란드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비영리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의 질 좋은 환경을 지원한다. 주목할 점은 낮은 문해력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도서관의 강화를 방안으로 택해 도서관이 언어 능력과 미디어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평생 독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네덜란드의 “Bibliotheek” 프로그램은 국가 도서관 네트워크로, 다양한 디지털 및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와 학습을 장려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자책과 오디오북, 온라인 작가 방문 등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를 지원한다. 특히 "Jeugd Bibliotheek"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읽기 및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학업과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네덜란드의 공공 도서관은 또한 커뮤니티 활동, 예술, 토론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와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Naples Sister Libraries) (OCLC)

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학교가 협력하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de Bibliothek op school)는 네덜란드의 독서재단과 국립도서관이 협력하여 학교에서 최적의 독서와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인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https://www.debibliotheekopschool.nl/> - de bibliotheek op school 홈페이지, 유아 교육기관 부터 고등 교육 기관까지 나이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한 데 통합하여 복잡성을 낮췄다.

Discover the Library at school by educational level



<De bibliotheek op school 홈페이지>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협력하여 매달 아이들의 책읽기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고있다.



더불어 가정에서도 좋은 독서 환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영국

본팀의 목표는 미래 도서관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것도 포함한다. 도서관은 사람들의 공간이고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며 삶을 살기 때문에 도서관도 그 방향을 함께해야 한다. 영국의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숙한 도서관의 이미지를 1950년도에 탈피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뜨개질, 목공, 가드닝 등 다양한 활동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며 관계를 맺고 그를 지속해 나간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형 도서관 역시 단순한 ‘책’의 공간을 벗어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영국을 탐사 국가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영국을 탐사 국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이다.

영국의 경우 2019년 도서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300여개의 도서관이 폐관하였으나, 문화예술부 차원에서 도서관 사업의 가치를 증명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스터디 카페로 대체하라 하는 등의 방침이 내려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이다. 실제로 그와 같은 위기에 처했다가 극복한 도서관에 방문하여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자문을 구해 우리나라 도서관의 존립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England Arts Council에서 국가의 도서관 사업들을 관리 중이며, 지속가능한 도서관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Libraries as community hubs: case studies and learning’(2017), ‘Impact and engagement toolkit: Understanding your audiences and how your services create positive change’(2023), ‘Future Libraries: Imagining the future of libraries, come rain or shine’(2024)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들에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및 개인에게 가지는 가치, 기후변화 및 인구이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미래의 도서관 방향성 설정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ii.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 해외 탐사 전반적인 기대효과

1. 아동 문학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창의적 활동 공간 구성

아동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태도와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아동 연극 프로그램의 소재 선택과 진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습득.

아이들이 안전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의 구성 방법을 분석하고,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 도구의 활용 방안을 연구.

Maakplaats와 Summer Reading Challenge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참고하여,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국 도서관에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

2. 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및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강화

도서관이 단순한 ‘책’의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인식 변화 방법을 모색하고, 도서관과 지역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

도서관 간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함으로써 작은도서관들이 서로 협력하며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연령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활발히 이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 탐사 기관별 세부 기대효과

1. Bilbliothek Gelderland Zuid Library

Bilbliothek Gelderland Zuid Library는 네덜란드의 Nijmegen 지역의 남쪽에 있는 도서관으로 ‘The city’s living room’이라는 표어를 문장을 대표로 내걸고 있다. 모두에게 열려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으로 언어 공부, 디지털 기기 학습, 독서 클럽, 개인의 발전을 위한 취미, 교양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VR 체험, 보드게임, 어른들을 위한 커피 모임, 뮤지션과 협력한 공연, 운동 모임, 자산 관리 교육 등을 주관한다.

도서관 = 거실, 이라는 개념은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일정한 목표가 정해져있는 다른 공간과는 달리 거실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는데 도서관이야말로 이 인식에 정반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책을 빌리고 읽는 곳’, ‘식음료 섭취가 불가능한 곳’, ‘눕거나 뛰어서는 안되고 소음을 최소화해야하는 곳’으로 정의되는 우리나라의 도서관과 정반대의 수식어로 설명되는 이곳을 경험하고 싶었다. 또한 전통적인 도서관의 인식 바깥의 활동을 주관하는 사서를 만나, 어떤 기준으로 활동을 만들고 그 운영 실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인터뷰함으로서 우리가 개발할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했다.

2. OBA Staatsledenbuurt

OBA Staatsledenbuurt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OBA 소속의 도서관이다.

<https://www.oba.nl/jeugd/maakplaats-.html>

아이들의 창의력과 디지털 이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암스테르담의 OBA, 10 곳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작업실 ‘모야’와 성격이 비슷하다. ‘모야’는 선생님들의 도움없이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모든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Maakplaats는 ‘재활용 옷 만들기’, ‘종이, 3D 프린터, 자연물’등을 활용한 만들기 등 주제를 정해 수시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열어둔다.

아이들의 능동적인 창의성을 존중하는 Maakplaats가 있는 OBA중 한 곳으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담 사서가 있다. 암스테르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심 속 도서관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Musical performance for little people”과 같이 친근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직접 이야기를 창작해보는 프로그램과 “Pleasant reading moment”이라는 아동이 이야기를 읽지 않고, 듣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서관 프로그램의 취지와 아동들이 참여하는 현장을 알아볼 수 있다. 아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위주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 이유와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OBA Oosterdok

OBA Oosterdok는 OBA Centraal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도서관’과 결을 같이한다. 가장 큰 도서관임과 동시에 가장 많은 활동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 직접 보고 느끼고자 했다. 또한 인터뷰 요청을 한 Francien은 OBA의 프로그램 전체를 주관하는 책임자로 최대한 많은 도서관에 프로그램 도입을 꿈꾸는 우리로서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 자문을 구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Redaing and Crafting과 같은 프로그램 외에도 Stories in all languages, EXHIBITION | Dolls that every children can identify with과 같이 다양성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과 아동에게 도서관이 쉼과 놀이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도서관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성 존중과 관련된 프로그램 활동을 기획할 시 필요한 점과 유의점을 알아내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에 참고할 수 있다.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재고해볼 수 있다.

<https://everychildareader.net/cbw/>

- OBA Oosterdok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every child a reader 홈페이지

OBA 중 유일하게 극장이 있는 곳으로 도서관 속 극장의 모습을 관찰하고 우리나라 도서관에도 극장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 지 인사이트를 얻고자 한다.

<https://my.matterport.com/show/?m=SPt85Ay9hQp> - OBA Theater를 소개한 내용

4. Idea Store

Idea Store의 Whitechapel 지부. “Idea Store”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도서관을 넘어서 기존 도서관 서비스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며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의 장과 성인, 아동 등 폭넓은 대상을 둔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도서관을 벗어나 언제든 편하게 들렀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런던 빈민가로 알려진 타워햄리츠의 낮은 도서관 이용률을 개선시켰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Story Time’에 사용되는 그림책의 선정 기준이나, 아이들의 흥미를 끌게하는 방법, 프로그램 진행자는 누구인지 등 도서관에서 정기적인 아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알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극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조언을 얻고, 지역 커뮤니티로서 운영되는 도서관의 실제 현장을 알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5. Durning Library

Durning Library는 런던 Lambeth 자치구에 속한 Lambeth 도서관 중 하나로 1899년에 설립되어 지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아이들에게 축구공을 대여해주는 이벤트, 수학과 영어 수업,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 세션과 영유아 rhythm time과 같은 아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여름에는 Ready, Set, Read!라는 여름 독서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동에게 도서관이 쉽고 놀이의 공간으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정기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여름 독서 챌린지와 같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을 때 활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이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지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들어보고자 한다.

학교와 도서관 간 연계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방법과, 학교와 도서관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를 듣고 한국의 사례에 적용할 부분을 찾고자 한다.

6. Bexley Library

Bexley Library는 벅슬리 지역에 있는 12개의 도서관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도서관이다. 12개의 도서관 중 Bexley Library를 포함한 6곳은 벅슬리 의회 소속이며, 나머지 6곳은 지역 커뮤니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어린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책 읽는 법을 연습하는 ‘Read with Me’라는 정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벅슬리의 중앙도서관으로서 모든 사람이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Clear vision books,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Bag books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폐아 친화 도서관으로 운영중이다.

벅슬리 지역 내 전반적인 도서관들의 운영 체계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국내 작은도서관과 비교분석하여 장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도서관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을 기획 및 채택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다소 단발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주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서관에 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묻고 작은도서관의 개선 방향을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 관련 탐사 내용 정리

i. 국내 탐사 내용 정리

연계 분야	대상	일시 및 장소
문학치료 전문가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김민지 선생님	2024.06.07(금), 이화여자대학교 ECC B104
	한국문학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이사 박재인	2024.06.20(목),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1206호

도서관 관계자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은주 이사장님	2024.06.13(목),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본부
	전주 쪽구름도서관 최유경 사서님	2024.06.26(수), Google Meet 화상 인터뷰
	책과 교육연구소 김은하 선생님	2024.07.24(수), 서울 합정역 근처 카페
연극놀이 전문가	교육연극 전문가 박지원 선생님	2024.07.22(월), 인천 부평역 근처 카페
현장 답사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2024. 06. 22(일), 팔복예술공장, 전주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국내 탐사의 경우, 인터뷰를 거듭하며 세부 주제를 수정해가는 과정을 담기 위해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한 오름차순으로 그 내용을 수록하였음.

(1)

일시 및 장소	2024.06.07(금), 이화여자대학교 ECC B104
인터뷰이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김민지 선생님
연계 계획	1. 현장경험에 기반한 실제 문학치료의 사례 2. 문학치료 시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자의 태도
인터뷰 내용	
문학치료의 효과 (사례)	
개인 블로그에 '죽고 싶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하여 경찰에 신고 접수 및 출동한 전적이 있는 남학생(내담자)에게, 김민지 교수님(상담자)께서는 문학치료의 일환으로 함께 '필사하기'를 제안함. 필사의 과정에서, 함께 읽은 소설 속 등장인물이나 그	

등장인물의 행동이 왜 싫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내담자가 가진 부정적 감정이나 그 잔여가 소설 속 인물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해소되었다고 봄.

해당 내담자는 사랑에 대한 열망이 강한 케이스였는데, 이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문학 텍스트 속에서 '사랑의 요소'들을 함께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함. 흔히 생각하는 이성 간 연애나 성애적 의미의 사랑만이 아닌, 문학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예를 들면 '밥을 먹었냐는 엄마의 물음'이나 '친구들이 지금 어디냐고 묻는 말')을 통해 사랑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침.

9개월 후, 해당 내담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임. 성격이 많이 밝아졌으며 계속해서 문학을 영위하며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함.

문학치료 시행 시 상담자가 가져야 할 태도

과도한 공감이나 '편 들어주기'와 같은 태도는 지양할 것.
기복 없이, 객관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아동 내담자를 대할 때 유의할 점

- (1) 과한 애착관계 형성을 지양하라. 어린 내담자의 경우 부모에게 가져야 할 애착을 상담자에게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후 여러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음.
- (2) 책을 통한 활동을 할 때, 어린 아동의 경우 초반에 집중시키는 게 가장 어려우며 가장 중요함. 큰 몸동작이나 다양한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을 풍부하게 활용하여 아이들의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일을 쉽게 만들 것.
- (3) 아이들 앞에서 힘들고 지친 기색을 티내지 말 것. 언어적 능력이 비교적 덜 발달된 만큼, 다른 감각, 예를 들면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게 빠름. 어른인 상담자가 하품을 하거나 그의 표정에 드러나는 지루함 등이 아이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이 책은 재미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함.

용어 변경에 대한 제안

문학치료의 '치료'라는 어휘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therapy, 즉 '치유'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안해주심.

(2)

일시 및 장소	2024.06.13(목),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본부
인터뷰이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은주 이사장님
연계 계획	1. 작은도서관과 아동이 관계 맺는 방식 2. 도서관 프로그램의 계획과 시행 3. 어린이 책이란?
인터뷰 내용	
다른 유형의 도서관들과 비교했을 때, 작은도서관만이 갖는 의의	
(1)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은 그 자체로 특이하고 고유한 역사성을 지님. 1990년대 이전만 해도 국내 공립도서관의 수가 아주 적었음. 당시, 대졸자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권 사람들이 부모 세대가 되었을 무렵 점차 도서관에 대한 이들의 욕구가 증가함. 부모로서 자식세대에게 좋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서관의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책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았음. 그래서 이들이 책을 읽고 싶고 또 읽고 싶은 욕구를 기반으로 책을 모아 만든 공유 서재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작은도서관.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한 운동성이 있으며, 당연하게도 어린이를 위한 환경이 함께 따라옴.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연령의 모든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지님. (2)도서관의 조직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무언가를 실행하려고 할 때 결재,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그렇지 않으며, 그런 자율성을 바탕으로 큰 공립 도서관에서는 만들지 못했던 서비스를 굉장히 실험적으로 만들고 확산했다는 의미가 있음. (3)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의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고 나와있음. 즉,	

누군가 탑다운으로 내리는 형식이 아닌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로 이루어지는 것.

(4) 작은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 어르신, 임산부, 어린 아이들 등 보행권이 약한 사람들이더라도 근처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함.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하고, 그 소외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작은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 즉, 누구에게나 안전한 독서 문화 공간으로 작용함.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

아동을 대상이 아닌 당사자로 바라 봄.

모야에는 선언문이 있는데, '시작과 끝은 내가 정한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지 않는다'와 같은 것들. 모야에서는 어린이를 작은손, 그들을 돕는 자원 활동가를 오른손이라고 칭하는데, 오른손의 경우 작은손을 돕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 작업자를 믿고, 작업자의 창작성을 믿고, 어린 아이인 작은손을 그대로 존중함. 이 모든 것은 모야가 어린이를 대상이 아닌 당사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라봤다면 어떤 하나의 키트를 주고 모두 똑같은 것을 만들게 하여 돌려보냈을 것.

도서관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볼 때 흔히 이용자 수만을 가지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평가하곤 함.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그와 반대되는 사례. 모야는 시끄러운 도서관을 지향하며 손으로 무언가 직접 만드는 노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아동친화적 환경을 갖춘 도서관

(1)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것은 기적의 도서관. 인제를 비롯한 제천, 김해, 진해 등 다양한 지역의 기적의 도서관의 경우, 건축적인 측면에서부터 일반적인 도서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설계 한다든가 직선이 아닌 곡선을 활용한다든가 함. 지금은 흔해 보이는 설계이지만 모두 기적의 도서관에서부터 출발한 형태.

(2) 요즘 아이들은 좌식을 잘 못함. 또, 어딘가에 숨거나 깊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함.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고려하여 작은 책상과 의자를 많이 배치하거나 숨을 수 있는 동굴 같은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형식으로 섬세한 가구 배치 필요.

(3) 입지 조건 중요. 공원 옆, 어린이집 근처 등의 입지 조건 고려할 것.

(4) 도서관은 환대하는 곳이다. 적절한 환대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서관 안에서 일하는 사서나 행정직에 대한 기술적이나 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닌 더 다양한 측면의 교육이 더욱 잘 시행되어야 한다.

도서관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유의할 점

꼼꼼한 리서치가 선행되어야 함.

작은도서관은 지역성이 짙은 곳이므로, 해당 지역과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조사가 특히나 중요할 것. 이용자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만드는 사람 위주의 공허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

어린이 책이란?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책. 어른들이 보기엔 조금 껄썸해도, 어린이가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 해결해나가고 상상하며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어른의 책이 아닌 어린이책.

예시로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책이 있음. 엄마가 아이에게 "들어가 있어, 괴물딱지 같은 녀석아!" 하면 아이가 "나도 엄마 잡아먹어 버릴거야!"하고 방문을 쿵 닫고 들어가서는 혼자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다녀오는 내용. 어린 아이가 부모를 잡아먹겠다며 대드는 내용 때문에 한때는 금서였지만, 아이들은 이 책을 무지 좋아함. 내가 주체가 된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용어 변경에 대한 제안

문학 '치료'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심.

더불어,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팀의 배경이 되는 연극동아리라는 특이점을 활용하여 '교육연극'을 통해 아이들과 문학으로 함께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심.

(3)

일시 및 장소	2024.06.20(목),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1206 호
인터뷰이	한국문학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이사 박재인
연계 계획	1. 문학치료의 중요한 개념 2. 문학치료의 특징과 효용 3.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의 목표 설정
인터뷰 내용	
독서치료와 구분되는 문학치료의 정의	
독서치료는 매체치료의 하나로, 독서라는 행위를 매개로 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 반면 문학치료는 상담이라는 방법보다는 내담자의 문학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분석해내는 것. 문학 전공자들이 만들어 낸 테라피의 일종으로, 문학 작품처럼 사람 또한 분석해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 이는 문학이 서사를 지니듯이,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서사가 있기 때문. 이때, 분석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람이 가진 자기서사와 문학작품이 가진 작품서사임.	
자기서사와 작품서사	
문학치료의 기본적인 기법은 내담자가 어떤 문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어떤 서사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중요한 작품 요소들을 어떻게 상징화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임.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되는 한 사람의 '자기서사'에서, '서사'란 텍스트(text)나 내러티브(narrative)와는 다른 개념으로, '인지 도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 도식, 인지 도식이 문학 작품 서사의 골격이 아주 얹아 있는 형태라고 보는 것이 기본 전제.	

문학치료의 특징과 효용

내담자에게 문학치료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끌어내고 직면하는 과정보다는 문학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부담이 덜 됨.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중간에 문학이라는 매개를 하나 둬으로써 더욱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담자의 인지 도식과 감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남. 개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에서는 의식적 차원의 이야기만 나올 수 있지만, 문학치료는 그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언어화 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음.

어린 아이의 자기서사

자기서사는 태어날 때부터 구축되는 것으로 봄.

앞서 언급했듯이, 문학치료가 다루는 자기서사라는 용어 속 '서사'란 내러티브(narrative)와는 달리 '사람이 가지는 인지의 도식'을 가리킴. 즉, 나이가 어리고 생의 길이가 짧다고 해서 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자기서사가 덜 쌓이거나, 불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음. 어린 아이에게도 자기만의 인지 도식과 감정 도식이 있고,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문학치료를 시행하는 일 또한 가능함.

예방적 차원의 문학치료에서의 발달단계에 따른 목표 설정

문학치료가 트라우마 치료 위주의 사후처리 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즉, 예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고려해야 함.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나이대의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알맞는 보편성으로 접근하면 예방 치료가 가능할 것. 심리학에서 이야기 하는 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노년기로 이어지는 연령대별 발달과제 중 아동에 집중해보면, 아동기의 주요 발달과제는 신체기능, 집단생활능력, 읽고 쓰기의 기초적 기능 획득임. 이러한 발달과제에 맞게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구성하여 문학 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예방 치료가 가능할 것. 기획하려는 프로그램이 만 5-8 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이대의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해 보이는 과제, 특히 사회화 기술이나 문해력을 기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문학치료에 사용되는 텍스트가 설화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
구전 설화에는 인류의 지혜가 축적되어 있으며, 문화적 원형성이 박혀 있음. 설화 안에 들어 있는 서사적 화소 자체가 어느 인간이라도 고민하고 경험해왔을 문제들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임.

(4)

일시 및 장소	2024.06.26(수), Google Meet 화상 인터뷰
인터뷰이	전주쪽구름도서관 최유경 사서님
연계 계획	1. 아동친화적인 도서관 환경 조성 2. 공공도서관 간의 연계 방식
인터뷰 내용	
쪽구름도서관과 아동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있는 아동실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아동실에서는 대부분 문학 작품 위주의 독후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에 더해 교과 연계 독서 프로그램도 진행함.	
아동이 문학을 더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한 환경 개선	
쪽구름도서관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임. 리모델링 이후에는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곳보다는 '책 놀이터'라는 형태와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성함. 기존의 도서관에서는 완전히 탈피한 형태로, 건축 자체부터 구조가 변경되어 공간이 벽 없이 콘셉트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 유아들에게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구조물들 또한 설치함. 최소한의 벽을 이용한	

계단 걷기나 미끄럼틀 타기 등을 가능할 수 있게 하여 아이가 다양한 감각을 키울 수 있게 하며 부모들이 안전한 육아의 공간으로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쪽구름도서관이 가진 특성화 주제

전주시의 도서관들은 각각이 지닌 자기 도서관만의 테마가 있음.
쪽구름도서관의 경우 2024 년부터 '다문화'가 그 주제로 선정되었으며, 시민을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다문화인들에게는 그림책을 통한 한글 교육, 다문화 가정 방문 프로그램, 도서관 이용 교육 등을 제공할 것이며, 비다문화인들에게는 이주민 강사를 초청하여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음.

도서관의 인력 충원 문제

기존에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파견을 가기도 하고, 도서관에도 별도의 강사 양성 과정이 갖춰져 있기도 함. 그림책 작가분들 중에서도 그림책 프로그램을 수료하신 분들이 활동가가 되기도 함. 그렇게 활동가가 생겨나는 과정의 중간 역할을 도서관에서 해드리는 것. 사서가 직접 기획하고, 활동가까지 양성하고, 관리까지 해드릴 수 있으며, 경력 단절되신 분들께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

전주시의 도서관 간의 연계 및 독서 생태계

전주시는 전주시만의 도서관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공공 시립 도서관만 부각시키지 않고 인근의 지역 작은도서관까지 상생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함. 따라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상호대차 서비스 등을 12 개의 공공 도서관과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함께 운영함.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 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독서 생태계를 염두에 두었는데, 이 독서 생태계란 도서관, 서점, 출판사, 그리고 작가의 4 가지 요소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말함. 작가가 책을 짓고, 팔고, 책을 사거나 빌려 읽을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 도서관이 그 중심이 되어 작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도서관을 이용하면 쌓이는

독서 포인트로 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 전체의 독서 활동을 장려함.

(5)

일시 및 장소	2024.07.22(월), 인천 부평역 근처 카페
인터뷰이	교육연극 전문가 박지원 선생님
연계 계획	1. 연극놀이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2. 연극놀이에 사용하는 텍스트 선정 기준
인터뷰 내용	
연극놀이 프로그램 실제 진행 방식 (사례)	
‘나도 학교 가기 싫어’(송하완)라는 그림책을 활용한 연극 놀이 프로그램 사례. 이 그림책은 학생이 아닌 선생님의 입장에서, 선생님도 학교에 가기 싫다고 주장하는 책이며, 해당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극놀이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1) “우리가 오늘 이야기 주인공을 만날건데, 그 주인공이 바다에 가고 싶대. 바다에 가면 어떤 느낌이야?” 라고 질문을 던짐. 아이들로부터 다양한 대답이 나옴. 시원하다, 숨이 트인다, 등. (2) 큰 쉬폰 천을 가지고 “그럼 우리 바다에 한 번 가볼까?” 하고 천으로 바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걸어보고, 함께 노는 시간을 가짐. (3) “근데, 왜 이야기 주인공은 바다에 가고 싶어 하는 걸까?” 라고 질문함. 그럼 아이들이 “지금 기분이 안 좋은가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이런 대답을 함. (4) “그럼 왜 이 주인공이 학교에 가기 싫은지에 대해 연극으로 한 번 만들어볼까?”	

(5)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주인공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연극을 만듦. 괴롭힘을 당한다, 급식이 맛없다, 공부가 싫다 등등의 이유를 바탕으로 연극 창작.

(6) 이후 책을 읽어줌. 학교에 가기 싫었던 주인공은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었음이 밝혀짐.

(7)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학교에 안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팽풍 토론을 함.

(8) 아이들과 선생님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보는 연극을 함. 아이들이 처음에는 선생님이 없어서 좋은 점을 이야기 하다가도, 점점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점들을 이야기로 만듦. 선생님이 없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 처음엔 행복하더라도 갈수록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됨.

(9) 아이들과 함께 시 창작. 한 명이 한 행을 지어서, 그것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시를 완성하고 연극 놀이는 종료됨.

(10) 선생님도 학교에 가기 싫을 수 있다는 것, 즉 나 아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 공간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음.

교육연극과 연극놀이의 차이점

연극의 두 가지는, 하나는 theater,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drama, 자신이 연극적으로 경험한 것. 연극 놀이는 두 가지 연극의 과정 중 '드라마'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연극 놀이는 가상의 상황을 직접 만들어서 그 안에 살아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 점에서 교육적 목적을 가진 연극과는 다름.

연극 놀이에서 사용하는 텍스트와 그 선정 기준

드라마 티처(연극 놀이의 리더)마다 성향이 다름. 중요한 것은 대상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냐는 것. 대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선정해야 함.

다만,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등 현실과 너무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양함. 그림책은 비유와 상징의 매체이기 때문에 이 비유와 상징을 이용해 가상의 세계를 안전하게 경험해본다는 의미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그림책이 아이들의 현실의 삶에 과도한 영향을 줄 만큼의 주제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지양해야 함.

(6)

일시 및 장소	2024.07.24(수), 서울 합정역 근처 카페
인터뷰이	책과 교육연구소 김은하 선생님
연계 계획	1. 작은도서관의 사서와 프로그램 2. 작은도서관 개선 방향
인터뷰 내용	
작은도서관의 정기 프로그램	
대표적인 것이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보통 해당 작은도서관의 사서가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자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아동 참여자는 매 회마다 변하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논의가 축적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으나, 해당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또한 그 지역의 아이들이 주로 찾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이 어렵지 않음.	
연극 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작은도서관의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도입 전까지 그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임.	

여러 조건을 따져서 프로그램을 특정 작은도서관에 도입하더라도, 그 전까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주목받기 어려움.

작은도서관의 사서에 대해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서 선발. 주로 문헌정보학과가 베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립의 경우는 훨씬 다양한 베이스가 있는 편.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의 학부 수준에서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지만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보통 학부 시기에 타전공을 한 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 관련으로 전과를 함.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전문 사서가 많이 있을 수 있음. 학부 시절에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서, 어린이 교육학 분야의 사서 등 전문 사서가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에서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환경.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순환 시스템을 고집함. 사서가 어느 때에는 데스크 업무를 했다가, 어느 때에는 자료 수서를 했다가, 어느 때에는 어린이집 방문을 했다가 하는 등 다양한 것을 한 번에 해야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시스템이기도 함.

작은도서관 등록제의 문제점

현재 작은도서관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평수, 권수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등록이 됨.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절대적인 도서관의 숫자만 늘어나는 상황 발생. 이를 막기 위해 허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의 수가 줄어들더라도 제대로 지원하고 관리하자는 것.

작은도서관을 위해 이용자인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은도서관을 인식하며 스스로 자신의 삶에 그것을 끼워넣는 작업이 필요함. 이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가능한 일.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주로 인식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가족 차원에서 처리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아직 부족한 영역이 바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 우리 사회는 아직 나라에서 무언가 주는 걸 받거나, 확대 가족의 형태(선후배, 동문, 친구 등)로만 선의를 베풀. 하지만 시민의 영역은 무시할 수 없음. 국가도 가족도 아닌 그저 한 시민으로서 다른 시민을 환대하는 자세가 필요함.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얼굴도 모르는 다른 시민을 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책을 그냥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지만 우리 동네 독립서점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더 비싼 돈 주고 직접 가서 책을 사줄 수도 있는 것.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시민들과 이 지역사회를 위하는 것, 그것이 시민적 영역임.

(7) 현장 답사

일시 및 장소	2024.06.23(일),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
------------	---------------------------------

전주팔복예술공장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JIPF)의 메인 전시장이었던 팔복예술공장은 전주와 협업하는 여러 작가의 그림책 전시는 물론 아이들이 직접 그림책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특히 권윤덕 작가의 ‘행복한 붕붕어의 여정’과 관련된 색칠하기 활동 코너에서는, 아이들이 그려져있는 그림에 얹히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단순히 색칠이 아닌 자신만의 창작을 이루어내는 양상을 볼 수 있었음. 이 점에서 아동들의 창의성은 교사가 지도하는 개입이 적을수록 크게 발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전시이지만 방문객들이 마음껏 그림책을 만지고, 읽으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유로운 전시여서인지 아동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음. 곳곳에 다양한 연령의 아동 청소년들이 엮드리고, 눕고,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음.



<전주 팔복예술공장 작가 협업 전시장>

전주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해당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IBBY 전시와 어린이를 위한 공간 구성이었음. 우선 IBBY란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로, 아동청소년이 장애 혹은 언어 등의 장벽없이 접할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하여 전시하였음. 해당 책들은 모두 열람 가능한 형태로 놓여 있었으며, 아이들의 키에 맞는 낮은 선반에 위치해 있었음.

해당 센터는 복합문화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서관은 물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음. 도서관은 기존의 딱딱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동굴형태의 소파, 알록달록한 색감의 가구배치, 폭신하고 안전한 구조물 등으로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했음. 해당 공간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고 구르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책을 읽고 있었음. 이 공간은 마치 지역사회의 ‘거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는 공간이었음. 추가적으로, 전주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에는 위의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던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위치해있기도 함.



<전주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어린이 책기지>

ii. 국내 전문가 인터뷰 내용 정리

위 6개의 인터뷰 내용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요점으로 인사이트를 정리하였다:

1. 문학치료와 연계된 프로그램

1) 문학치료의 사례 및 효과:

- 문학치료는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을 문학 텍스트 속 인물에 투영시켜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가진 내담자에게 필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고 이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문학 속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탐색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재정립하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2) 문학치료의 접근법

- 상담자가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대하며, 과도한 공감이나 편들기를 지양하는 것이 중요함. 이는 내담자가 스스로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임.
- 어린 내담자와의 관계에서는 과도한 애착 형성을 피해야 하며,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해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3) 용어 변경 제안:

- ‘치료’라는 단어보다는 예방적 의미를 포함하는 ‘치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음.

2. 어린이와 도서관 환경

1) 작은도서관의 역할:

- 작은도서관은 민주화 운동과 부모 세대의 욕구에 의해 형성된 자율적이고 지역밀착형의 도서관임. 이는 모든 연령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하며,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안전한 독서 문화를 조성함.
- 작은도서관은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

2) 아동친화적 도서관 설계:

- 아동친화적 도서관은 건축적 요소부터 시작해 아동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 예를 들어, 숨을 수 있는 동굴 같은 공간이나 작은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는 환경이 되어야 함.

3) 도서관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

-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지역성과 이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문해력 및 사회화 기술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3. 연극놀이와 교육연극

1) 연극놀이의 사례:

- 연극놀이는 아이들이 가상의 상황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여,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예를 들어, ‘나도 학교 가기 싫어’라는 책을 활용한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서로 다른 시

각을 이해하게 됨.

2) 교육연극과 연극놀이의 차이점:

- 교육연극은 주로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연극놀이는 가상의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둠.
- 연극 놀이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는 대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 현실과 너무 가까운 이야기는 피해야 함.

4.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1) 정기 프로그램의 특성:

-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은 지역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며, 반복적 참여가 용이함.

2) 프로그램 도입의 전제 조건:

-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할수록 프로그램의 효과는 극대화됨.

이러한 요점들을 종합하여, 문학치료와 도서관, 그리고 연극놀이 프로그램의 연계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해외 탐사 내용 정리

해외 탐사는 총 6곳에서 진행하였다.

네덜란드의 Bilbliothek Gelderland Zuid Library, OBA Staatsledenbuurt, OBA Oosterdok

영국의 Idea Store Whitechapel, Durning Library, Bexley Library 이다.

각각의 기관은 사전조사를 통해 탐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핵심이 될 곳들로 선정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유의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ilbliothek Gelderland Zuid Library
1. 도서관의 역할이 비단 책을 보유하고 빌리고 반납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 활동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 안에는 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반영된다. 카페, 쉼터, 공연장, 극장, 동아리 방 등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의 역할과 비교하여 변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2.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용도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가변성이 높은 가구를 두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공간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해야한다. 기존의 도서관에 변형 가능한 공간을 찾아보고 앞으로 바뀌어 갈 도서관의 모습 중 필요한 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3.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역시 연극이나 그림책을 전공한 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기여도가 높아지면 상부상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자원봉사 시스템에 이를 도입하면 좋겠다. 4. 독서와 교육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프로그램의 보편적인 상용화가 목적이라면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수 있지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학교가 있다. 학교 도서관의 사서와 지역 도서관의 사서의 협력은 아이들에게 좋은 독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이다. 5. 아이들에게 좋은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겁 먹어서는 안 된다. 현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 디지털, AI등 '책'이라는 물리적 대상이 아닌 책 속의 이야기에 관심 갖고 그것이 독서에 대한 관심으로 커지도록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야한다.
OBA Staatsledenbuurt
1.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잘 계획된'것 보다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유동성 있게 프로그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자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아이들을 잘 알

고 있는 사서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다.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하는 다정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시도해보는 공간이다.

2.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최대한 많은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공간을 면밀히 알아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3. 낮은 문해력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연계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교육과 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책이 있는 곳에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 교육적인 목표가 있다. 그 접점을 이루는 곳을 잘 활용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고 학교 역시 지역적 특징을 띄기 때문에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작은도서관은 책을 제공하는 등의 보완적인 체계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4. 도서관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학교와 협력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지 못하는 까닭은 이를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더 많이 알려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반드시 알려질 수 밖에 없는 창구를 통해 홍보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5.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하여 오로지 아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아이들은 성향이 다르고 그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부모'이다. 도서관은 독립적인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에게 독서를 통한 즐거움을 주는 곳이고, 그 환경이 가정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부모를 배제하지 않고 외려 가정에서도 시도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6. 안정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끼리도 공유하는 지침이 있어야 각자 특색에 맞춰 변형하더라도 어느 도서관 하나의 우수성과 특별함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도서관이 함께 지속될 수 있다. 이를 보급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의 존재가 중요하므로 우리나라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고자 한다.

7. 아이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려면 이를 만드는 어른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이 자주 마련된다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같은 작은도서관이면서도 '경쟁'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좋은 선례를 공유하고 싶지 않아 하고 '공모'를 통해 과시하려는 기조가 남아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해야한다.

OBA Oosterdok

1. 지역 도서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도서관의 특성 상 다른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예산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데 서로 상부상조하며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도서관 내의 사서들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비치된 책의 작가들과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최대한 색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점이 인상깊었다. 작은도서관은 규모의 특성상 많은 사서들이 함께 근무하기가 어렵다. 그대신 유동적으로 외부와 협력할 수 있고 지역 사회의 규모이므로 홍보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십분 활용하여 다른 그림책을 활용해 직접 작가를 초청하여 아이들과 간단한 연극놀이를 해볼 수도 있겠다.

3. 비영리단체들의 도움은 예산 증진 뿐 아니라 그 단체들의 사업과 연결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독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도서관과 거리가 멀어보이더라도 협력에 있어서 제한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 영국

Idea Store Whitechapel

1.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

-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친숙한 소재(학교, 친구, 가족 등)를 활용할 때 흥미 가짐
- 헤이하이 프로그램 초기 차시에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소재와 상황으로 이루어진 그림책 또는 활동 기획에 참고 가능

2. 극단과의 파트너십

- 연극 프로그램을 기획시, 도서관과 극단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방법
-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목표를 일치시킨다는 점이 지역적 특성이 강한 한국의 작은 도서관에 적용하여 지역 커뮤니티와 상생을 이뤄내는 데 실현 가능한 지점

3. 도서관 내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4. 지역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촘촘히 이어진 도서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성 가능, 특히 방학 중에 아이들이 도서관을 자주 찾을 수 있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각각 도서관마다 마련하여 두가지 효과를 모두 확보 가능함. 각 도서관의 정보를 산발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어느 도서관에 가서든 같은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게 공통된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함.

5. 영국의 도서관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음.

Durning Library

1. 도서관과 학교의 협력 및 프로그램 운영

- 학교와 도서관의 강한 협력 관계를 통해 아이들이 도서관을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정기 방문과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이용을 습관화하고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성장시키는 방법.
- 위기 극복 및 지역 소그룹 활용
- 예산 삭감 문제와 소규모 커뮤니티를 활용한 지역 행사 및 작가 초빙을 통한 위기 극복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작은 도서관이 지역 내 소그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2. 규모가 작은 도서관임에도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 회의 공간, 체스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공간, 가드닝, 뜨개질 공간, 아이들을 위한 공간, 업무 공간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음.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이 규모가 작음으로 빈번히 실패하는 시도들이 많은데 공간의 역할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가능한 일들이 많음.

3. 도서관의 매니저가 모든 일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작은도서관과 접점이 있음. 아이들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데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해 진행하고 있는 점이 흥미로웠음. 작은도서관의 사서들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서들과의 연계를 통해 서로 장점을 공유하여 어느 작은도서관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면 좋겠음.

Bexley Library

1. Bag Books의 활용 및 아이디어

- 감각을 자극하여 입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Bag Books의 사례가 참신하며 현재 사회

에 필요성 느낌. 완벽한 형태의 Bag Books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그림책 속 사물과 상황들을 감각적으로 구현한 도구들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얻음

2. 모두를 위한 평등한 공간 제공

여름 독서 챌린지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책의 범위를 넓힌 점, 도서관에서 나이, 장애, 배경에 관계없이 평등한 공간을 제공하려는 노력 확인.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 배리어 프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인지

3. 영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도서관 = 조용히해야하는 공간, 책을 읽어야 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났음을 이해.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작은 변화들을 모으려는 자세가 중요함.

v. 해외 전문가 인터뷰 내용 정리

1. BilbliothEEK Gelderland Zuid Library

방문일자	2024.07.09.(화)
장소	BilbliothEEK Gelderland Zuid Library
인터뷰이	Emilie Moolenaar Programmamaker jeugd at BilbliothEEK Gelderland Zuid
기념 사진	
인터뷰 내용	
도서관 소속과 지원	

도서관은 특정한 기관의 산하에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함.

그러나 정부로부터 운영 예산의 약 80%를 보조받음. 정부가 아닌 다른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도 함.

도서관의 어려움 극복

코로나 19의 창궐 전에는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감소하여 많은 도서관들이 문을 닫음 -> 사람들의 문해력 저하 및 공동체 분해 -> 정부가 도서관의 역할 강조 -> 지원 확대 -> 도서관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언제든' 들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인식 확대.

자원봉사자의 역할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됨. 예산 부족을 메꾸는 역할을 함.

본 도서관은 약 55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도서관을 함께 운영함.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프로그램 관리자가 아이디어나 운영 방식에 대해 안내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오기도 함. 이로써 프로그램 개발자는 남는 시간동안 더 많은 일에 힘쓸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개인 발전에도 도움이 됨.

-> 한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도움은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함.

도서관 대표 프로그램

1. 학교도서관과 지역도서관의 협력

도서관 장서의 순환 : 네덜란드에는 모든 학교 내에 도서관이 있음. 또한 학교의 도서관들이 지역의 도서관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 매달 도서관끼리 책을 교류하여 아이들이 더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

AI를 활용해 통해 책의 순환 범위를 넓힘.

한 학교에 인기있는 장서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그 책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책들을 지원함.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이는 학교의 도서관 사서와 지역 도서관의 사서들이 모두 동료로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수월함. 각 도서관이 무엇을 원하는 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 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언제 미팅을 해야할 지 등 수시로 대화하며 도서관 운영을 함께함.

-> 그러나 모든 도서관이 그런 것은 아니고 각 도서관의 예산에 기반하여 달라지기도 함.

학생들이 도서관에 방문하기도 함.

2. Reading Morning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읽는 시간. 다양한 주제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아

이들에게 지적인 자극을 계속 주는 목적. 이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네덜란드의 도서관이 가지고 있음.

#작은도서관의 지역적 특색

: 큰 도서관보다 작은 도서관에 오히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가짐. 네덜란드의 도서관은 작을수록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띰. 주민들이 직접 주민의 공간이 되도록 만들.

예) 학교에 가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아이들에게 책을 전달하고 집에서 함께 읽기도 함. 도서관과 주민이 아주 강하게 연결된 예시.

#도서관 프로그램의 계획성

도서관은 대부분 4년 장기 계획을 가짐. 시민들은 참여하고 싶은 활동을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도서관 측에서도 이를 홍보할 시간을 충분히 가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서들에게도 운영의 체계성을 갖추는 데에 도움을 줌.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

네덜란드의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이곳이 편히 머무를 수 있는 '집'과 같은 공간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목적이 있음.

도서관 주최 대형 프로젝트

Kidsplein축제

: 3살부터 14살 아이들과 부모들이 참여 가능.

지역의 대학과 협력하여 다양한 워크샵을 열어 아이들이 관심있는 직업군을 경험하도록 도움. LGBTIQ와 함께 'Pink Wednesday'를 개최하여 아이들의 성정체성에 대한 경험을 확대함.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책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콘서트를 열어 작가와의 만남 추진.

-> 스스로가 누군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 하는 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축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주의할 점

'재미'가 있어야 함.

아이들을 다시 도서관으로 불러오는 요소 : 재미

그럼에도 모든 것은 '책'으로부터 시작해야 함

* '책'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연결하려면 얼마든지 모든 것과 연결할 수 있음. ->

도서관 프로그램은 제한이 없음

예) 작가가 아닌 뮤지션도 아이들의 언어와 창의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는 책의 역할과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연결'을 만드는 것을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김.

배움 : 한 가지를 주제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함. 직접 가서 보

고 느끼고 능동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배우는 것이 중요함

* '집중'이 어려운 아이들이 먼저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함. 일단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빠르게 즐기 시작하므로 그 시간동안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우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에 거침이 없기 때문에 책을 통해 연 세상에서 마주한 모든 것들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 무엇을 잘 하는 지 무엇을 좋아하는 지 알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이 책을 통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됨.

문해력 향상을 위한 노력

어른들을 위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 'Dutch learning'

아이들을 위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 'Reading Club'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은 '공동체'적인 특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함.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머물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해도 되는 열린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함. 모든 연령대에게 평등하게 인식되어서 평등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의 역할임.

현장 답사

1. 아이들의 공간

아이들의 공간은 서가와 분리되어 있다. 인포데스크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구는 문이 따로 없이 개방되어 있다. 낮은 서가에 나이대별로 책이 분리되어 있으며 책의 주제를 아이콘이 인쇄된 라벨로 분리하여 보고싶은 책을 고르는데 도움을 준다. 종이책 뿐만 아니라 다칠 위험이 적은 책, 촉감이 부드러운 책을 고를 수 있는 구역을 따로 분리한다. 벽과 천장, 서가는 대부분 흰색이며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은 다채로운 색깔과 아이들의 작품으로 꾸며져있다. 서가와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벤치 아래에는 모두 바퀴가 달려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목적에 맞추어 때로는 영화관이 되기도 때로는 만들기 장소가 되기도 한다.

2. 책을 정리하는 기준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장르와 작가의 이름에 맞추어 정리할 수 있는 라벨이 붙여져 있다. 서가 사이의 간격이 넓고 서가 곳곳에 다른 목적의 공간이 있다. 1. 지역의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 둔 '시' 구역, 2. 무료로 인쇄기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구역, 3. 간단한 회의와 강연을 진행하는 구역 4. 대여가 가능한 강의실 5. 도서관 중앙에 위치한 다목적실 6. 멀티미디어실, 7. 공연장 등이 있다.

현장 답사 사진



가장 왼쪽부터 시계방향 순 - 1,2 도서관 내의 아이들 공간, 3 아이들 공간의 모든 구조물에 바뀌
가 달려 목적에 따라 공간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4 도서관의 공연 및 강연 공간 5 책 분류 기준
을 이모티콘과 함께 명시하여 책을 고르는 데 도움을 준다 6 입구와 마주보는 커다란 인포데스크
7 도서관 내의 독립된 공간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7 사적인 작업을 존중하는 의자

2. OBA Staatsledenbuurt

방문일자	2024.07.10.(수)
장소	OBA Staatsledenbuurt
인터뷰이	Samira Hoogvliets Activiteitenbegeleider Jeugd Stadsdeelteam West
기념 사진	
인터뷰 내용	
도서관 소속과 지원	
소속 : OBA *OBA는 암스테르담에만 있는 총 28개의 도서관들을 지칭함. OBA는 자체 브랜딩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시도들을 함. 다른 네덜란드의 도서관들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별화되는 점들도 있음. 지원 : 대부분 정부 장서를 구입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 등 대부분의 도서관 운영 비용은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함. 그러나 최근에 정부 지원금이 삭감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음. 예) OBA의 프로그램 판매. OBA내에 판매 시설을 늘려 수익을 창출. 유료 프로그램을 만듦.	

마련된 아이들 참여 프로그램

Storytelling

꼭 아이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네덜란드어를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 가능.

이 그룹에 참여한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참여 숫자는 제한하지 않음.

프로그램 내용 예시 :

'책으로 여행하기' -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책들을 선정하여 아이들과 함께 읽음. 이를 위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잘 쓰여진 책인지 자문을 구하고 네덜란드어로 번역된 부분에 어색한 점은 없는 지 검토하기도 함.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

1) 즐거움. 책을 선정하는 기준도 '재미'가 우선. 사서의 역할은 고정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사람으로 참여함.

부모님과 함께할 수도 있음. -> 부모와 아이의 유대관계가 향상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함. 도서관을 재방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 부모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부모들도 배워갈 수 있는 것이 많으므로 부모님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음.

2) 아이들과 사서의 유대관계. 친숙함이 아이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이끔. '안전하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함.

3) 지속가능성. 3명의 직원들이 팀을 꾸려 프로그램을 순환 진행. 아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활동을 할 때 '아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은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음.

4) 적절한 책 선정 : 아이들의 책은 나이대별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음. 책의 등급은 단어의 수준이나 다루고 있는 내용이 기준이 됨.

-> OBA에서 각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고려해야할 점을 담은 가이드라인 제공

지역내 도서관과의 연계 방법

OBA Intranet : OBA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이어주는 온라인 플랫폼.

모든 직원들이 각자 담당하는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눔.

딱딱한 공지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도 재미를 위해서 공유하기도 함.

열린 분위기가 OBA의 소통방식의 큰 특징 -> 도서관의 개별성을 줄임.

직원들과 연결되기도 쉬움 : 같은 직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면, 복잡하게 이메일을 찾을 필요가 없고 검색 창에 'youth leader'라고 검색하면 직원들의 정보와 연락처를 바로 찾을 수 있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난감할 때면 다른 도서관에서 시도한 활동을 참고하거나 협력하여 개발하기도 함.

OBA의 총 책임자 역시 인트라넷을 통해 각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시로 바로 접할 수 있음.

OBA 정기 회의 : 전 직원들이 매달 첫주에 만나 큰 회의를 가짐. '회의'라는 명목 하에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직원에 대한 소개나 각자 도서관에서 변화한 점과 시도한 것들을 공유함. OBA의 직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함.

*인트라넷 :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구축한 통신망.

OBA의 방침 상 사진을 신지 못하였다.

OBA Newsletter : 대부분의 활동은 Newsletter을 통해 전할 수 있음. 구독제. 혹은OBA School의 선생님에게 새로운 활동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 학교 Newsletter에 실어서 해당 프로그램을 홍보함.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친숙함. 감정을 세밀하게 잘 느끼는 아이들의 특징 고려. 아이들 앞에서 긍정적인 감정 유지하려고 노력.

자유로움. 아이들의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음. 아이들은 자기 자신 그대로, 일 수 있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므로 그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프로그램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음.

능동성 :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함. 아이들의 의견 반영.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고 재미 역시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질문들도 많이 하는데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질문이 도움이 됨.

다양성 : 하나의 무언가를 함께하도록 이끌기보다 다양한 성향의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의 어려운 점을 도우며 채워주도록 함. 내가 좋아하는 것을 친구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잘하면 다른 친구는 저걸 잘 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짐.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모든 주민들의 심장. 세차게 뛰는 심장.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열려있는 내내 머물 수 있음.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 시민들은 도서관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도 한다. 정부의 지원이 삭감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이 자원봉사자로 오면 그들의 언어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기도 함. 그들이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텔링에 집중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하면 그 활동의 책임자가 되기도 함. 그들을 파트 타임 직업으로 고용할 수도 있음.

삶의 희망을 잃은 청년들에게 활력을 느끼게 하는 자극을 줌. 자원봉사 일이 좋은 자극이 되어 바깥 세계와의 연결을 돕고 봉사를 통해 삶의 이유를 다시 찾는 사람들도 많음.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 골치아픈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도서관에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됨.

문해력 증진의 단초.

자기자신일 수 있는 곳

도서관의 협력

아이들의 문해력이 악화되며 암스테르담 학교의 도서관을 모두 OBA가 관리하게 됨.
책들이 빠르게 순환되고 전문 사서들이 학교에서 일하며 '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

학교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 모두에 'Reading experts'가 근무함. 두 Reading experts는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도서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함.

지역 도서관의 사서는 장서 구입 전문가와 짝을 지어 근무함.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이 올바르게 번역된 것인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함께 검토하기도 함.

OBA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도서관에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면 작업의 반복을 막기 위

해OBA 전체에 검토가 필요한 책들이 보내짐.

도서관의 목표

미래형 도서관에 대한 OBA의 계획으로 OBA NEXT가 시도 중.

다양한 모습을 갖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 기술적인 도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보다 다양한 시설이 도서관에 집합됨.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존의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감축되는 단점이 있음.

문해력

아이들의 문해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은 원인이 하나가 아님.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질 좋은 수업을 하기가 벅찬 상황임.

문해력 증진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Junior Einstein>

<https://www.junioreinstein.nl/>

Practice online for all primary school subjects!



Language - Choose a group



articles Materials Videos Worksheets Goals To search

Language group 5

- ☐ Flash
- ☐ Spelling
- ☐ Word formation
- ☐ Parts of speech
- ☐ Verbs
- ☐ Vocabulary
- ☐ Syllables
- ☐ Sentence analysis



<Junior Einstein은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읽기 프로그램으로 '읽는 행위'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읽기'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활동이 '무료'로 제공되며 학교와 도서관에서도 이를 활용한다. 17 개 주제로 구성된 활동들은 아이들의 읽기 수준에 맞추어, 선호하는 활동에 맞추어 단계별로 제시된다.>

다양한 주제의 글과 그에 알맞은 활동들을 통해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함. 온라인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친숙함. 디지털이 발달된 이후에 태어나 자란 아이들에게는 아날로그형 방식보다 매우 효과적임.

홍보 방법 :

직접 주민들에게 찾아가 알리는 방법. 몇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직접 나눠주거나 아이들 학교와 협력하여 선생님 편으로 이를 알리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음. 아이들만큼이나 그들의 학부모도 학교와 도서관 사서들에게 친숙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함.

현장투어

1. 도서관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접근가능성이 높다. 단층으로 이루어진 작은 도서관이지만 디지털 교육 공간, 인포테스크, 서가, 공부공간, 사서들의 프로그램 개발 공간, 업무공간, 아이들을 위한 공간, Maakplaats 공간이 효율적으로 분리되어 각 목적에 따라 도서관에 머물 수 있다.

2. 도서관의 공간 대부분은 '흰색'과 '투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곳곳에 OBA 사용 방법, 프로그램 홍보 문서가 비치되어 있다. 성인이 주로 머무는 공간은 아이들의 공간과 가장 떨어져 있다.

3. 아이들의 공간은 모두 변형이 가능한 바퀴달린 서가와 의자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들의 작품으로 꾸며져 있고 아이들의 키에 맞추어 다양한 높이로 책이 배치되어 있다.

4. Maakplaats는 도서관 가장 안 쪽에 있는데 요리할 수 있는 부엌, 공구로 발명품을 만드는 공간, 그림 그리고 책을 만드는 공간 등 도서관의 배치와 비슷하게 목적별로 나누어진 공간들이 조화를 이룬다.

5. 이곳에 근무하는 사서는 2명이다. 사서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며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 사서 개인의 공간을 보장한다.

현장 답사 사진



<도서관의 입구, 위층은 주거공간이다.>



<아이들 창작공간 Maakplaats>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공간, 그림만 보여주고 함께 책 읽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선생님>



<서가와 디지털 공간>



<아이들의 공간, 영유아를 위한 천으로 만들어진 책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3. OBA Oosterdok

방문일자	2024.07.11.(목)
장소	OBA Oosterdok
인터뷰이	Francien Hageaars Programmamaker jeugd en jongeren
인터뷰 내용	
OBA의 다양한 시도	
다른 기관과의 협력. 극장이 있는 학교와 협력하여 연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기반이 되는 책을 제공함. 'Children's book week' : 네덜란드 전 지역에서 함께하는 가장 큰 책 행사. 매년 새로운 주제를 정해 책을 선정하고 아이들이 많은 책을 경험할 수 있게 함.	

Children's Book Week 2024

How stubborn!

The Children's Book Week 2024 will take place from October 2 to October 13 and the theme is 'Lekker eigenwijs'. Discover all the information and reading tips on our page!

LEKKER
EIGENWIJS!
KINDERBOEKEN
WEEK
2 T/M 13 OKTOBER 2024

Children's Book Week

Theme: Deliciously stubborn!

The theme of the 70th Children's Book Week is: 'Lekker eigenwijs!'. Children's books are full of strong characters who show how much fun it is to do what you want. This year, dive into books full of headstrong characters who do things their own way, from *Mees Kees* to *Matilda* and from the *NEEhoorn* to the *brave knight*. Join us on a journey to worlds where three is only three six, where bedtime doesn't exist and where you can eat candy all day long. Celebrate being contrary! This Children's Book Week, we'll be reading books about characters who are a little bit contrary and headstrong.

<Children's book week의 홈페이지, 미리 정보를 전달하여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책을 고르고 글 쓰기 및 노래 창작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하여 풍부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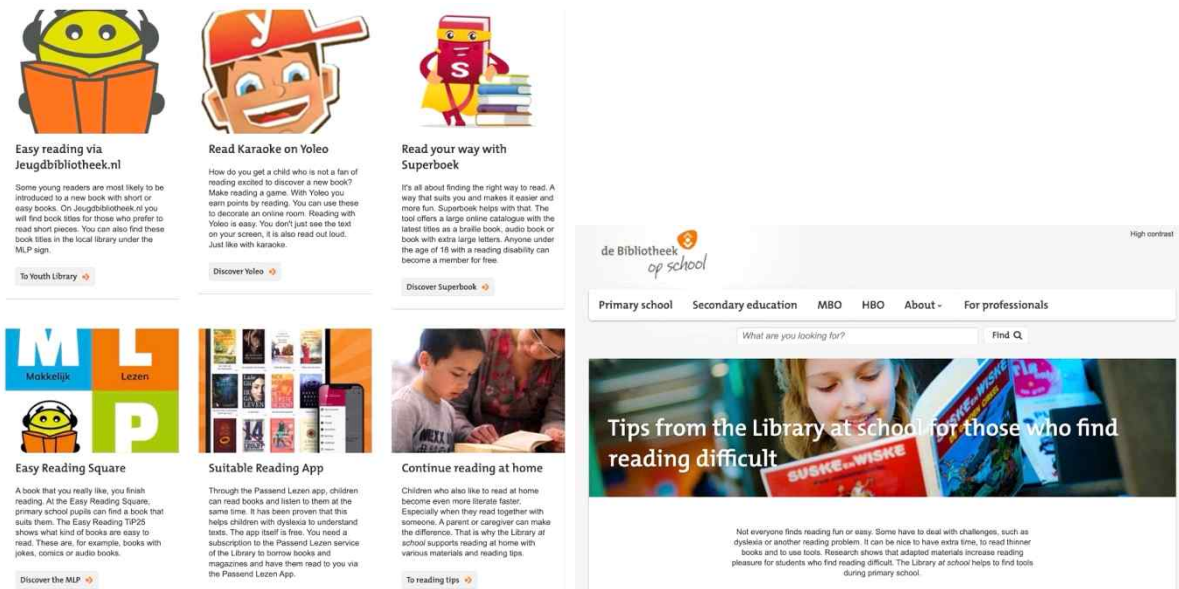
10월 2째주에는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축제 개최.

공간 구성

모든 공간이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개방된' 느낌을 줌. 그러나 층마다 목적이 나누어져 있어 그들 자체의 개별화된 층의 역할을 함.

OBA와 학교의 관계

낮아지는 문해력을 계기로 학교와 OBA의 협력 강화. 어떻게 아이들이 잘 읽을 수 있는 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책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협력하여 읽기 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시도함. OBA에는 학교를 도울 수 있는 상담자들도 많음.



<OBA School에 마련된 프로그램. 도서관과 학교가 협력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The building blocks of the Library at school	
For the Library at school, libraries, schools and sometimes municipalities work together to teach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read and write better and to deal with media wisely. The goal is to improve reading education and ensure that children read more and continue to read, both at school and at home. The approach is based on a number of pillars. These are called building blocks.	
Network & Policy In this building block, the focus is on working together with partners in the network of reading promotion. In this collaboration, agreements are made about goals and how these are achieved.	Expertise This step is about arranging good staff for the Library at school and trainings for library staff and partners from the network, such as teachers. The trainings are meant to improve the culture of reading and reading aloud at school and at home.
Reading environment & Collection This step is about providing good books and other materials, both digital and paper, that suit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use them. In addition, pleasant reading places are provided, such as a school library with book shelves and quiet reading places. And to read digitally via the online Library.	(Reading) and media plan This building block is about working together in a smart way, according to a plan. This plan describes what is needed to get and keep children and young people reading.
Activities This building block means that reading is thought about every day and activities are organised, also for parents, to encourage reading and reading culture. For example, a visit from a writer to the school.	Monitor This section is about conducting research,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d following the results. What is going well and what is going less well?
Digital services This building block focuses on creating digital tools that can be used by professional intermediaries and students, for example a lending system at school or the use of the online Library.	Media literacy Media literacy involves consciously, critically and actively using all available media – digital and analogue – to improve your own quality of life and ensure that you can participate optimally in the world around you.

<OBA와 협력한 도서관이 목표로 하는 8가지 – 연결성, 전문성, 읽기 환경 제공, 미디어를 통한 읽기 환경 제공, 다양한 활동들, 검토,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문해력>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1. 매주 화요일에 7세에서 9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 시간. OBA의 모든 도서관에 있음.
2. 부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음. 도서관에 와서 리딩 수업을 하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곳

에서 수업의 내용을 배워가 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독서를 하도록 부모들의 참여 독려.

3. 0세에서 4세 아이들은 일주일에 최소 두 번, 7세에서 9세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을 참여하도록 독려. 모든 아이들이 집에서 읽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는 않음. 학교에서 배우는 읽기 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열어두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처음 두 시간은 '읽기' 다른 시간은 '외국어 배우기'시간으로 구성.

4. Oosterdok에는 다양한 인종의 인형들이 아이들의 서가에 비치되어 있음. 이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들은 다르다는 주제로 쓴 책으로부터 시작됨. 책으로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하고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끔 발전시킴.

5. AI와 관련한 책을 쓴 작가를 초청하여 아이들의 만들기 공간인 Maakplaats에 함께 가 만들기를 진행하기도 함.

6. 책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골라 직접 VR 세상을 만들어 들어가보기도 함. 어떤 책 작가는 VR 세상에 사는 자신의 친구를 만들어 자신의 책 이야기를 VR세상에 모두 구축함.

7. 책을 통해 아이들 연극 개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주의할 점

'배움의 가능성'

OBA Oosterdok에만 있는 프로그램

In this branch you will also find:



House of Skills

Manufacturing place 021



<OBA Oosterdok과 협력하는 기관들, 위 기관들과 협력하여 OBA Oosterdok만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1. 학교 TV프로그램 개발 -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듦. 주로 학교 측에서 지역에 방문해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고 이를 다양화함. 그들이

Forum을 진행하거나 무언가를 시연할 공간이 필요할 때 OBA에서 이를 제공함.

2. House of Skill와 French Institute는 다양한 언어로 쓰인 책을 제공함.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권이 묶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음.

현장 답사



OBA Theatre

OBA Theatre

On the seventh floor of OBA Oosterdok you will find the OBA Theater, which with a capacity of 260 seats is suitable for larger presentations and performances. The 180 square meter stage is equipped with all professional facilities, including a backstage area with moni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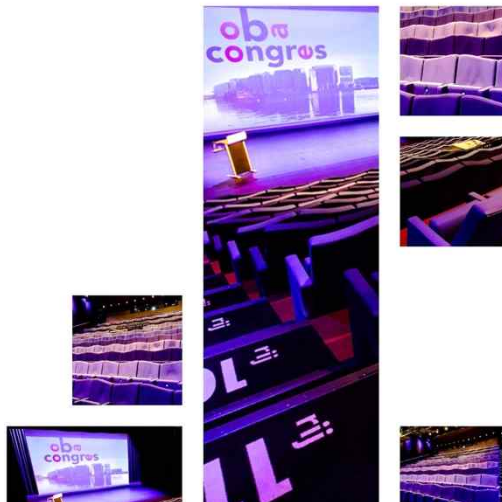
In addition, the space is extremely suitable for rent in combination with a livestream and/or recordings. Curious about the possibilities and the additional costs? Then contact **us**. We are happy to help you.

Adjacent to the OBA Theater is a foyer, possibly with a cloakroom. Guests can be welcomed here with coffee, enjoy a snack during the break or have a drink at the end.

surface:
180 m²
capacity:
260 people

available:
projector
whiteboard
flip chart
sound system
microphone
live stream and/or
recording

Prices:
€ 1500.00
Rate 1 day part Excl.
VAT
€2500.00
Rate for 2 half days Excl.
VAT



<OBA 극장은 도서관 내의 극장으로 지역사회 필요한 주민에게 대여하고 연극 관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OBA Oosterdok의 정문>



<OBA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 도서관의 지하1층에 위치해 있다.>



<다양성에 관한 책을 쓴 작가와 협력하여 만든 다양한 인형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적 구성을 갖고 있다.>

4. Idea Store

방문일자	2024.07.15.(월)
------	----------------

장소	Idea Store Whitechapel 내부
인터뷰이	Alison Harland Children Service Development Manager
기념 사진	
인터뷰 내용	
도서관의 소속과 지원	
● 소속과 지원 - 런던 타워 햄리츠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 도서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지원금을 받음 ● 도서관 예산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방법 - Art Council에 자금 지원을 신청 예) 코로나같이 국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을 하고자 할 때, 학교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식으로 지원금 받기 가능	
Idea Store 소개	
● Idea Store 탄생 계기 - 약 20년 전, 기존의 활용도가 낮고 관리가 미흡했던 주택가 도서관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을 커뮤니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쇼핑과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장소 근처에 도서관을 배치하는 등의 거대한 리뉴얼 시도 => 그 결과 현재 모든 Idea Store는 대형 마트나 시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음 ● 성인교육 프로그램 - '실험실' - 모든 Idea Store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실험실'이라 부르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 => 무료 X, 하지만 매우 기본적인 것부터 다양하게 구성 예) 영어가 제 2외국어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 수업 -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경우에는 요가와 춤 수업을 통해 제공	

● Idea Store가 제공하는 서비스

– 성인교육과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두 가지 측면 가짐

=> 도서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도 제공

도서관에서 진행중인 아동 프로그램

● 정기 프로그램

1. Story Time

– 진행 대상: 5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 진행 시간: 매주 월요일~토요일 / 오전 10:30~11:00

– 모든 Idea Store에서 진행

2. Art Club

– 진행 대상: 5세 이상의 아동, 보통 6,7,8세 아이들이 참여

– 진행 시간: 매주 토요일(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을 고려하여 주말인 토요일에 진행)

– 프로그램 내용: 문학 관련 / 국경일 / 기타 등 항상 그 주제들과 연결지어 구성하려 함, 도서관 게시판에 전시된 작품에서 봤다던 K-pop도 그중 하나. 또한 무슬림 인구가 매우 많은 타워 햄릿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와 관련된 요소도 포함하려 함

● 여름 특별 프로그램

1. Summer Reading Challenge

- Idea Store Whitechapel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정리한 핸드북을 비치

=> 드라마 워크숍, 레고 워크숍, 과일 바구니 만들기, 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들의 내용과 진행 일시를 한눈에 확인 가능



– 각 Idea Store마다 진행하는 활동들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게 제공

*참고 사이트 주소) [Summer Activities](#)



Idea Store Bow

LEGO® Build the Change Workshop

Thursday 23 July, 3 - 4.30pm

Join us at this fun workshop where we will try to build solutions with LEGO® bricks to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protecting endangered animals.

Get your flow with Tic-Tac-Toe

Thursday 25 July, 3 - 4pm

Add glitz and glamour to your own noughts and crosses' game.

Idea Store Watney Market

LEGO® Build the Change Workshop

Monday 22 July, 3 - 4.30pm

Join us at this fun workshop where we will try to build solutions with LEGO® bricks to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protecting endangered animals.

Summer Reading Challenge Mosaic

Thursday 25th July, 3 - 4pm

Come along and design your own mini book cover and add it to our giant Summer Reading Challenge Mosaic!

Idea Store Canary Wharf

Light the way

Monday 22 July, 3 - 4pm

Celebrate the start of the biggest global sporting event, the Olympic games. Make your own Olympic torch and light your way home.

LEGO® Build the Change Workshop

Thursday 25 July, 3 - 4pm

Join us at this fun workshop where we will try to build solutions with LEGO® bricks to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protecting endangered animals.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책 선정 기준 및 활동

[Story Time 사례]

● 프로그램 활동

- 대부분의 스토리텔링 세션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악기 연주와 함께 부모들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액션 송을 포함. 이러한 능동적인 방식을 활동에 섞으려고 노력
- => 위 방식이 특정한 공식으로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30분짜리 세션이니 계속 앉아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중간중간 노래와 라임 같은 요소를 항상 투입

● 책 선정 기준

-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반복이 많이 된, 오래된 애장도서 자주 사용 예) <곰 사냥>
- => 반복이 많은 것이 이 연령대의 아이들과 잘 맞음, 아이들이 그 이야기에 익숙해져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지 예상하며 해석하기 시작
- 반복은 아이들의 언어를 발전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도 중요, 아이들이 코로나로 의사소통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황에서 반복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다음에 어떤 언어가 오는지 예상 가능
- 아이들에게 익숙한 도서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림책 역시 항상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스텝가 그중에 세션을 진행할 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

도서관 아동 프로그램 진행자

-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스태프'라고 부름
(영국에서 선생님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느낌)
- 스태프 전원이 Story time을 진행 가능,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Story time이 업무 중 하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
- 담당 진행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아이들이 오면 스케줄이 맞는 스태프가 와서 프로그램을 진

행

아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하는 점

● Libraries Connected

<https://www.librariesconnected.org.uk/universal-offers/childrens-promise>

– 영국 전역의 공공도서관을 연결하여 보편적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틀을 제공하는 사이트

● Children's Promise

– Libraries Connected 제공하는 도서관 아동 가이드라인

–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이 도서관에서 즐겁기 위해 책을 읽고,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활동에 참여하며 행복을 증진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

=> 이것들을 가이드로 삼아 도서관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 등 모든 일을 이에 부합시키려고 함

책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 연극 프로그램

● 연극 활동의 장점

– 연극은 행동에 관한 것. 비언어적인 요소가 많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어린이들도 다른 어린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고 즐길 수 있음

– 도서관에서 하는 연극은 격식을 덜 차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아이들이 흥미를 끄는 요소

–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친숙한 책이 아니어도 학교나 가족, 익숙한 상황 등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소재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경향 보임

● 도서관 아동 연극 프로그램의 형태

– 활동 비율이 높은 경우: 많은 아이들을 위한 연극을 하는 극단이 종종 워크숍을 가진 후 아이들이 본 것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음. 또한 타 어린이 극단에서는 아이들이 때로 큰 소리로 대사를 뱉을 수 있는 상호적인 경우도 있음

– 관람 비율이 높은 경우: 현재 이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극 프로그램은 극단이 와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드라마 워크숍을 보는 형태다. 아이들이 그들 스스로 캐릭터와 사물을 생각해내는 활동과 이후 극단에서 준비한 연극을 관람하는 혼합적인 형태로 진행.

극단과의 파트너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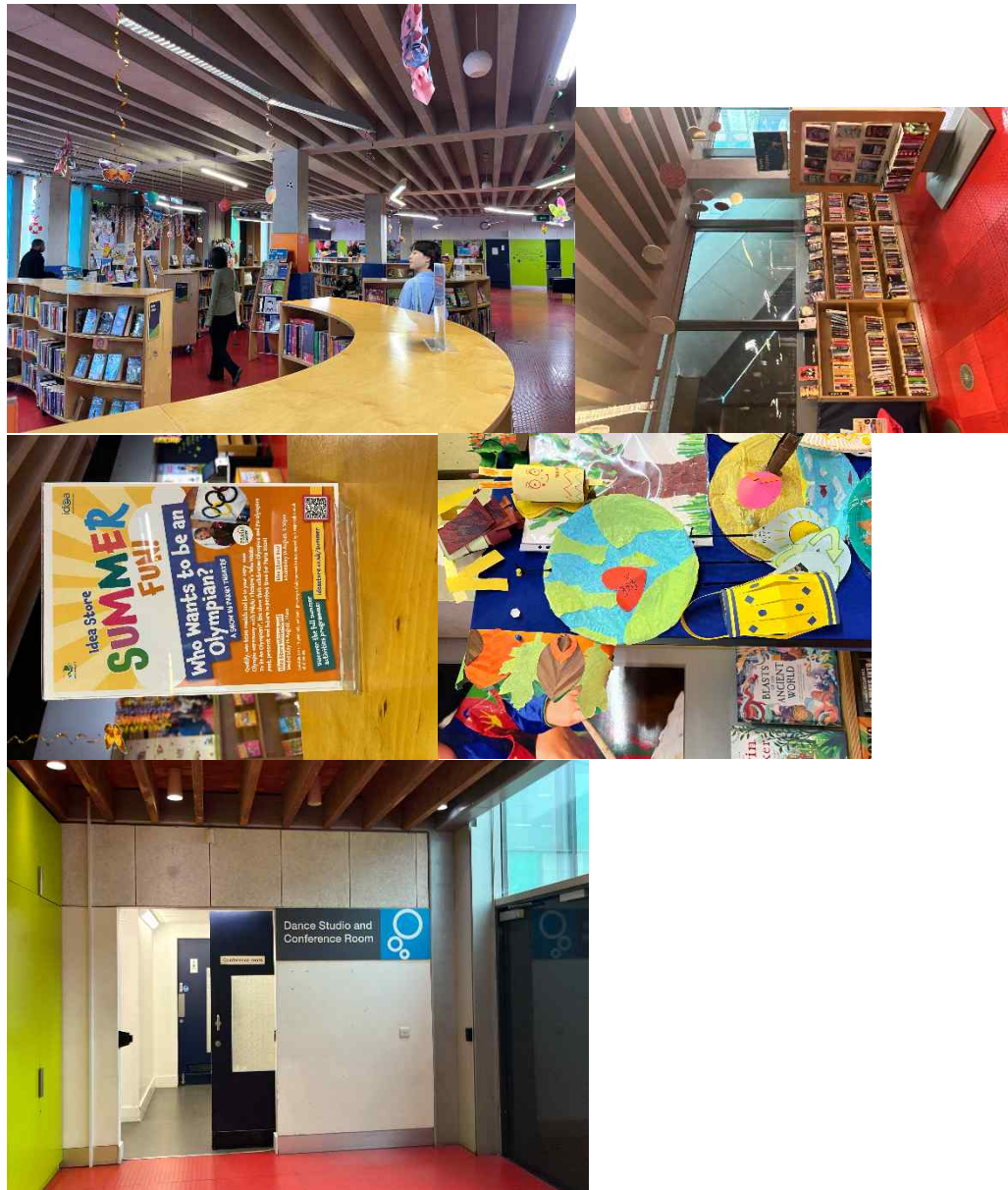
-지역을 파악하여 아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이웃 도서관들과 함께 지역 예술가 추천 그룹을 조직한 경험이 있음

-특히 공공 자금 지원 극단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신생 극단과 어린이 연극에 관심이 있는 극단을 찾는 것이 효과적

-도서관과 극단 간의 목표가 일치함. 도서관은 접근성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극단은 지역 커뮤니티에 접근하며 문화적 경험을 만들 수 있음.

예) 도서관은 장소와 직원을 제공하며, 극단은 연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업 가능

현장 답사 사진



5. Durning Library

방문일자

2024.07.16.(화)

장소	Durning Library 내부
인터뷰이	Arthur Lech Library Manager
기념 사진	
인터뷰 내용	
도서관의 소속과 지원	
● 소속과 지원 – 런던의 Lambeth 자치구 소속 도서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지원금을 받음 ● 도서관 예산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방법 1. 전시실, 면접 룸 공간 대여 – 예술가 전시 공간 대여: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대여하여 3주 동안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하며, 전시비 받음 – 공간 대여 서비스: 면접이나 회사 교육 세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비용 받음 2. 도서관 행사 개최 및 지역 작가 섭외 – 15년 전 도서관이 지원 삭감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몇몇 도서관이 친한 단체들과 캠페인을 열어 도서관 지원 – 현재 친한 단체들은 매달 한 번 도서관을 이용, 도서관이 직접 행사 개최를 하거나 단체가 도서관을 위한 행사를 조직하고 지역 작가를 섭외	
도서관과 학교 간의 협력	
● 학교 도서관 상황 – 영국의 일부 학교는 도서관을 갖추지 않거나 도서관이 방만한 크기로 존재한다 ●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	

- 지역 협력: 이 지역에는 6~7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보육원이 있으며, 도서관과 연계를 통해 어린이 독서를 장려
- 진행 시기: 6주에 한 번씩 학교에서 도서관에 방문하도록 하여, 가능한 많은 Lambeth 내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고자 함
- 목표: 독서를 즐거운 활동으로 만들어 문해력 향상과 휴식을 지원하며, 도서관과 학교 간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함. 아이들이 독서에 익숙해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 프로그램 효과: 도서관 방문 후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이 향상. 도서관과 학교 간 협력이 활발해져 아이들의 대출율이 50% 증가.
- 안전과 지속적 연계: 도서관은 학교 방문 시 안전을 보장하고, 여름 방학 후에도 예약을 이어가며 독서와 도서관 이용에 익숙해지도록 지원.

도서관 정기 아동 프로그램

1. Story Time

- 진행 시간: 매주 한 번
- 수용 인원: 20~25명(본 도서관의 규모가 작음)
- 활동 내용: 부모님이나 돌보미와 함께 참여. 사서가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많이 부름. 아이들이 노래 부르기를 매우 좋아함. 아이들은 앉아서 사서와 노래를 부름.

2. 3D 프린팅 워크숍

- 인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온라인을 디자인을 얻어 프린트 가능

Summer Reading Challenge

● 여름 독서 챌린지 개요

- 여름 방학 동안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6권의 책을 읽어야 함

● 상품 및 인증

- 책을 읽으면 책갈피나 스티커를 받고, 챌린지를 완료하면 인증서와 메달을 받음

● 챌린지 구분

- 4세 이하 어린이용: 부모와 함께 책을 읽고 스티커를 받음
- 5세에서 12세 어린이용: 나이에 적합한 책을 읽고 상품을 받음

● 챌린지 브로슈어

- 참여 아이들에게 챌린지 양식이 인쇄된 브로슈어를 제공. 읽은 책과 책이 좋았는지 싫었는지 기록



● 추가 활동

– 매주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만들기 활동 참여 가능. 현재는 슬라임 만들기 행사 진행중. 아이들이 이러한 활동을 좋아함.

자원봉사자의 역할

– 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장 경험을 위해 도서관 업무를 돕고 있음.
– 아이들도 직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데이터베이스 입력 등 기본적인 보조 업무를 경험. 도서관은 아이들이 즐겁게 근무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 휴무일 이벤트: 도서관의 휴무일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 예) 10월에는 Black History Month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
- 컴퓨터 및 Wi-Fi 사용: 도서관 컴퓨터 사용 가능. 도서관 회원 카드를 가진 이용자는 Wi-Fi를 무료로 사용 가능.
- 스터디 공간: 작지만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가정 방문 서비스: 외출이 어려운 사람들(예: 수술 중이거나 고령자)을 위해 제공. 사서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책을 추천하고, 다음 방문 시 책을 직접 가져다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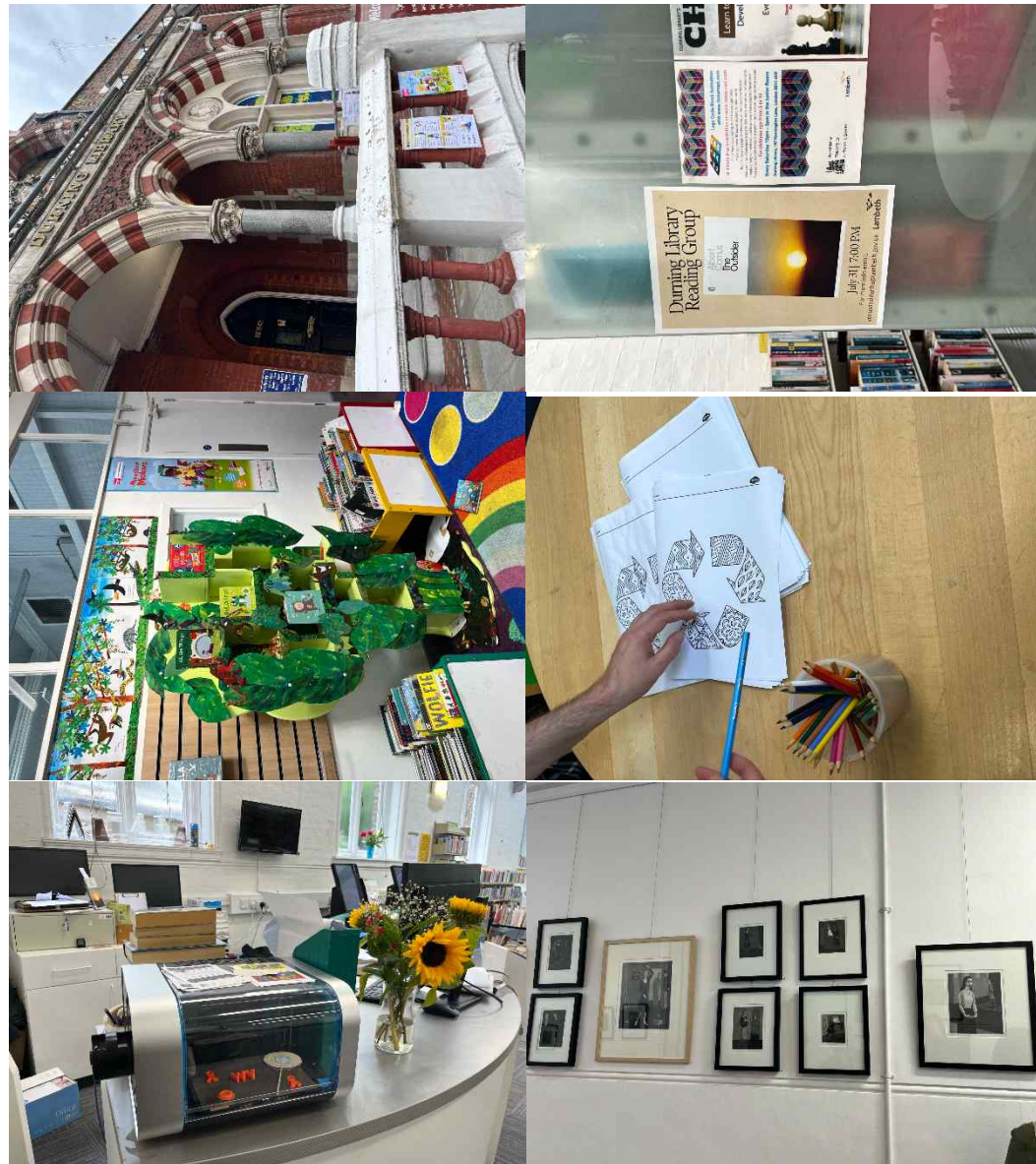
도서관 내 소모임 활동

1. 뜨개질 모임: 다과를 먹으면서 뜨개질. 완성된 작품은 자선단체에 기부
2. 체스 클럽 활동: 매주 토요일에는 정기적으로 진행. 도서관에 비치된 체스판을 사용해 체스를 즐길 수 있음
3. 독서 모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독서 모임을 운영. 이번 달의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활동

을 진행. 참여율은 나쁘지 않음.

=> 이밖에도 도서관은 지역 사회를 참여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중. Lambeth 지역의 약 120개 다양한 언어 사용자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직원 모두가 모든 언어를 구사하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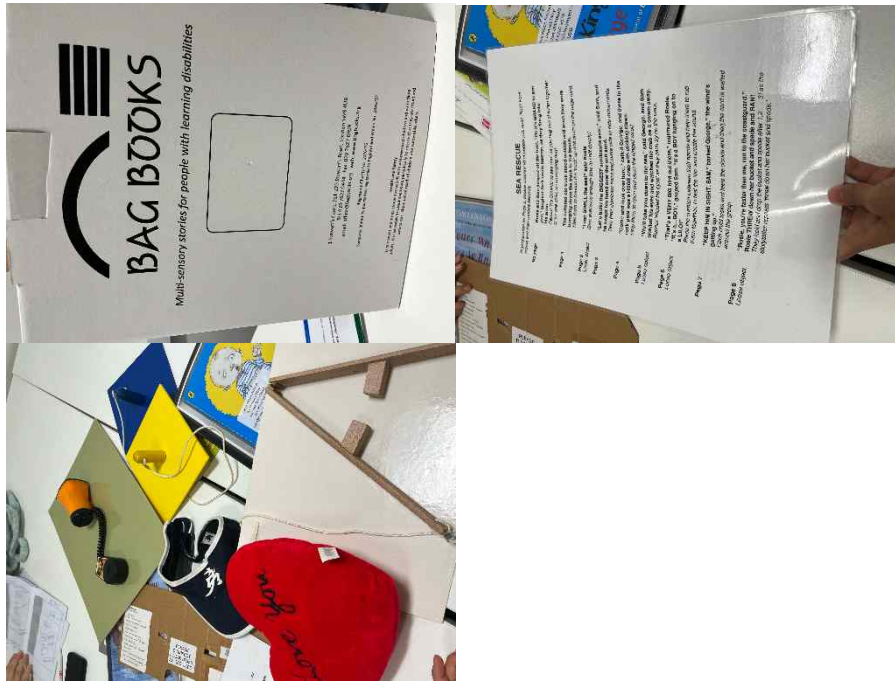
현장 답사 사진



6. Bexley Library

방문일자	2024.07.27.(수)
장소	Bexley Library
인터뷰이	Susan Prior Librarian
기념 사진	
인터뷰 내용	
도서관의 소속과 지원	
● 소속과 지원 –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6개의 벅슬리 도서관: 벅슬리 의회/지방 정부의 자금 지원 받음 – 6개의 커뮤니티 도서관: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 커뮤니티 도서관은 각 도서관마다 따로 예산이 있고, 누가 운영하고 어떤 자선단체가 비용을 댈지 결정 가능 예) 블랙핀 커뮤니티 도서관은 교회에서 운영 ● 도서관 예산 감소로 인한 어려움 – 국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영국에서 약 600개의 공공도서관이 사라짐 – 최근 런던 주변의 어린이 도서관 관장들과의 회의에서는 3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3~4곳에서 추가 예산 삭감 이루어짐. 이들 단체는 직원 유지와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활기차고 편안한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인식 변화	
– 영국에서는 30~40년 전까지 도서관이 조용히 해야 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놀거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환경이었음 =>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는 Toddler Time을 진행하며, 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읽고 쓰는 공간이 아닌, 즐거움을 주는 장소로 변화.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환영받는 환경으로 만들어질 것임.	
Bag Books	

- Bag Books (<https://www.bagbooks.org/>)는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중 감각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책을 제공
-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전통적인 책으로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Bag Books는 감각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소품, 냄새 아로마 등)를 포함한 책을 사용 -> 손으로 만지고, 움직이며 향을 맡는 등 공감각적으로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함
- 오는 9월부터는 초중등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에서 Bag Books를 활용할 예정



Summer Reading Challenge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성격 및 변화

- 여름 독서 챌린지는 재미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The Reading Agency에서 운영하는 전국적인 캠페인. 이전에는 각 도서관이 시험에 가까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시험이 아닌 재미 있는 활동으로 변화

● 여름 독서 챌린지 프로그램 구매 및 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약 90%가 여름 독서 챌린지 프로그램을 구매, 이는 국가 차원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 대규모 구매로 인해 컬러 인쇄와 스티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 진행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가능

● 참여 방식의 다양성

- 문해력이 낮거나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도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을 통해 여름 독서 챌린지에 참여 가능. 이러한 방식으로 미션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

도서관 정기 아동 프로그램 및 기타 이벤트

● 정기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직원이 교육을 받고 진행)

1. Toddler Time

- 진행 시간: 2-30분 정도 소요
- 활동 내용: '반짝반짝 작은 별'과 같은 친숙한 노래부터 움직임이 있는 노래로 활동
- 6개의 벅슬리 의회 소속 도서관은 모두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2. Chatter

books

<https://readingagency.org.uk/get-reading/our-programmes-and-campaigns/chatter-books/>

- 현재 본 도서관에서는 운영 X, 다른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Chatter book reading group을 운영하는 경우 볼 수 있음.
- 활동 내용: 시험을 위한 게 아니고, 읽은 것을 재밌게 풀어내고 만들기 활동도 함께 하는 재미있는 활동으로 구성
- 진행 시간: 한 달에 한번. 직원 수가 충분하다면 많은 학교들이 더 많은 공공도서관과 해당 프로그램 시행 가능

3. LEGO Club

- 벅슬리 의회 소속 6개 도서관 모두 제공하는 프로그램
- 모든 도서관에서 매우 인기가 많음. 레고가 가정에서 사기에 꽤 비싸고 구입하기에 어려운 형편일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오면 레고를 무료로 가지고 놀 수 있음

4. Stay and Play

- 그냥 와서 사교하고 도서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프로그램

● 추가 예산 지원 및 행사 계획

- 올 여름, 새로운 예산 지원을 받아 벅슬리 6개 도서관에서 각각 3가지의 아동 프로그램을 진행-아프리카 드럼 리듬과 노래를 알아보는 행사, Freshwater Theater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드라마 워크숍 등

아이들과 어른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

1. 다양한 연령대의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에서는 아동 프로그램부터 노년층을 위한 커피&대화 모임 등 모든 연령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2. 소음 관리 및 정보 제공

-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상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포스터나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광고로 안내.

예) 매주 금요일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정보를 제공
 -> 소음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그 시간대를 피하도록 유도

도서관의 역할

● 도서관의 접근성 및 개방성

– 도서관은 모든 연령대(아기부터 노인까지)에게 열려 있음.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아기, 노인,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해 경사로나 자동문과 같은 시설을 마련 필요.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이며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립적.

● 다양한 언어 지원 및 정보 제공

– 런던에서 사용되는 330개 이상의 언어를 고려하여, 도서관은 영어와 함께 4~5개의 지역 커뮤니티 언어를 지원. 또한, Press Reader 앱을 통해 60개의 다양한 언어로 된 신문과 잡지를 제공하여 넓은 범위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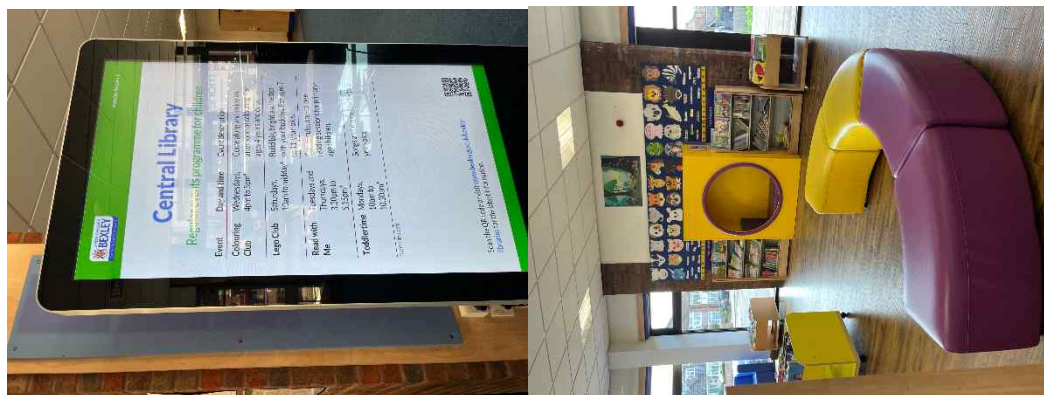
● 자원봉사자와 커뮤니티 그룹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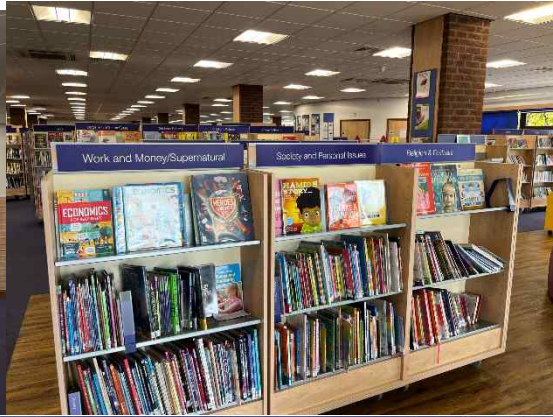
– 자원봉사자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그룹을 구성하고 있음

예) 커피 대화 모임과 같은 활동을 주도하는 자원봉사자

–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함

현장 답사 사진





III. 결론

i. 탐사주제의 핵심 내용 요약

다음은 한국,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도서관을 탐사하고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탐사결과이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 차이

한국에서는 도서관이 주로 책을 읽고 공부하는 학습적 공간으로 인식되며, 음식물 반입 금지와 조용한 환경 유지 등 청결 및 엄숙한 분위기 유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인터뷰이가 모두 공통적으로 도서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 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국에서도 지역사회의 노년층에게 커피와 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이 꾸준히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연결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노력으로부터 비롯되는 인식 차이는 도서관의 활용도 및 활성화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을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단절된 학습의 공간이 아닌,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ii. 연구의 의의

본 탐사는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서관 운영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ii. 후속 연구 방향 제시

국내 및 해외 탐사를 진행하는 동안, 다양한 도서를 활용한 연구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그 중, 기존 문헌연구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국내 연구 사례 중에서는 우리 민족 고유 가치 및 정서에 대한 학습 및 사회화를 위해 전래동화를 주로 활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해외 사례의 경우, 점점 다문화 세계로 나아가는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도 자기민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들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여러 인종이 어우러진 현대의 동화책 또한 학습의 도구로 자주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방문국가인 영국과 네덜란드에 비해 다문화 인종이 적은 편이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타 인종에 대한 이해 및 소수 인종인 아동들의 자아 정체성 확립에 현대의 도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현대의 흐름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최신의 동화책을 도입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탐사 이후, 헤이하이 내에서의 회의 결과 아동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며, 우리의 손으로 직접 시행해야만 가치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안을 공모전이 아닌 교내 도전학기제에 문제해결형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의 기획안은 2025-2 도전학기제를 위한 기획초안이다. 추가적으로, 국내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전주 쪽구름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여, 프로그램 기획안 및 가이드라인을 추후 완성하여 전달 예정이다. 해당 도서관에서 검토 후 추후 프로그램 실행이 확정된다면 프로그램의 진행에 일부 팀원이 파견되어 도울 예정이다.

프로그램 기획안

서론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정서적 발달은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아동의 전반적인 사회성 발달과 직결된다. 그러나 5-8세 아동들은 언어 능력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감정언어 문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안녕, 나의 마음아!" 프로그램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기획된 도서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문학을 매개로 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림책을 통해 감정을 배우고, 연극 활동을 통해 이를 표현해 봄으로써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보고서는 "안녕, 나의 마음아!" 프로그램의 개요, 목표, 세부 활동 내용, 활동 시 주의사항, 시범운영 계획,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감정언어 문해력을 높이고, 지역 도서관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론

안녕, 나의 마음아!

5-8세 아동을 위한 감정언어 문해력 증진 도서관 프로그램

해당 자료의 이미지는 playground 2.5를 이용해 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5-8세 대상

언어적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연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림책 카미시바이

그림책으로 보는 작은 연극, 카미시바이를 활용합니다.

직접하는 연극 활동

자기서사를 연극을 통해 표현합니다.



Made with Gamma

프로그램 목표

문학을 매개로 하여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1 감정 이해
그림책 속 인물을 통해 다양한 감정 인식
- 2 감정 표현
연극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 표현 연습
- 3 공감 능력
다른 참여 아동과 상호작용하며 타인의 감정 이해



Made with Gamma

세부 활동 내용

"안녕, 나의 마음아!"는 각 세션마다 두 가지 주요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카미시바이로 그림책 보고 듣기

카미시바이를 이용한 구연동화

감정 표현 및 이야기 흐름에 대한 이해

그림책 연계 자기활동

그림책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

Made with Gamma



활동 세부 계획

4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1회차
감정 언어 알기, 감정 카드 놀이
- 2회차
가족관계에서의 감정 표현하기
- 3회차
친구관계에서의 감정 표현하기
- 4회차
나의 감정을 알고 표현하기

Made with Gamma



활동 시 주의사항



자율성 존중

아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안전 우선

위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주의시키기



객관적인 질문

지도자의 의도가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

Made with Gamma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

서울 송파구에서 시범운영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	내용
위치	10분 거리 이내에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위치
공간	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 (열람석 10석 이상)
도서관 활성화도	기존 프로그램 운영 현황

Made with Gamma

기대 효과

아동의 문해력 증진 및 자기표현 능력 증진을 기대합니다.

- 1 **도서관 친밀도 증진**
아동의 도서관에 대한 친밀도 높이기
- 2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가족 단위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3 **돌봄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방과 후 돌봄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잠재력 발휘
- 4 **놀이터로서의 도서관**
안전하게 관리되는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서의 의미 제공



1. 프로그램 개요

지역도서관과 상생하는 “안녕, 나의 마음아!” 프로그램은 언어 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5-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문학을 통해 그들이 감정과 상상력을 알맞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각 세션은 다양한 그림책을 읽어주는 스토리타임과 이후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의 감정 표현 능력의 향상과 창의성을 촉진한다.

2.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은 다음 세 가지의 주요 목표를 기준으로 기획되었다.

감정 이해: 그림책 속 인물을 보고 들으며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능력 향상

감정 표현: 연극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 학습

공감 능력: 다른 참여 아동과 상호작용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향상

3. 세부 활동 내용

세부 활동 내용에는 두 가지 주요 활동이 포함된다.

첫 번째 활동 - 카미시바이로 그림책 보고 듣기

: 카미시바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이야기 전하기 방식으로, 그림 연극이라고도 불린다. 커다란 종이 그림을 차례대로 넘기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다. 이 시간에는 도서관 사서나 교사가 카미시바이를 이용해 그림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야기 속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비사항으로는 카미시바이 그림책, 알맞은 좌석 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활동 - 그림책 연계 자기활동

: 이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각자 그림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주어진 각종 소품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아이들은 이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도 있고, 선생님 혹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다양한 소품이 준비물로 필요하다.

4. 활동 세부 계획

1회차: (미정) 다양한 감정을 다룬 그림책 사용

- 주제: 감정 알아보기
- 활동: 감정 카드 게임, 표정으로 감정 표현하기

- 목표: 다양한 감정 인식 및 학습

2회차: (미정) 가족과 관련된 그림책 사용

- 주제: 집에서의 감정 표현하기
- 활동: '내가 주인공이 된다면?' 나만의 이야기로 만들기
- 목표: 가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학습

3회차: (미정) 친구와 관련된 그림책 사용

- 주제: 공감 배우기
- 활동: 친구들과 하나의 책으로 즉흥 역할극하기
- 목표: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방법 배우기

4회차: (미정) 자아에 대한 그림책 사용

- 주제: 그림책으로 감정 표현하기
- 활동: 나만의 이야기와 감정을 담은 그림책 만들기
- 목표: 창작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인지하기

5. 활동 시 주의사항 가이드라인

- 활동을 주도하는 교사 혹은 사서는 아동의 자율적인 참여를 지향해야 한다.
- 아동에게 맞는 크기의 문구용품을 사용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을 넓힌다.
- 아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되, 위험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시킨다.
- 아동에게 질문할 때에는 본인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6.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

해당 프로그램은 사서와 교사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나, 프로그램 배포 전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시범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획자 파견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시범운영의 대상 지역은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열렸던 전주이다. 현재 전주는 지난 도서전은 물론, 다양한 도서관, 지역서점, 작가들이 협력하여 많은 국내에서 선진적으로 도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이기에 시범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주에서의 시범운영 결과가 프로그램의 효능 입증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서대문구 내의 작은 도서관에서도 시범운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활동을 위한 장소마련을 위해 도서관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10분 거리 이내에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가?
- 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열람석 10석 이상)
- 기존에도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참여가 활성화된 도서관인가?

위와 같은 기준을 통해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도서관을 선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4주 동안 진행되며, 5-6세 반은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말에, 7-8세 반은 방과 후 돌봄의 개념으로 수요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세션 당 60분에서 90분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활동 이후에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프로그램 효용성 평가를 위해 짧게 참여 아동과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평가요소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인가?

- 이전 세션 참여아동의 지속적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 참여인원의 증감추이를 통해 분석한다.

② 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한가?

- 5-6세 반의 경우, 프로그램 전후로 아동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 표현의 양상을 관찰 분석한다.

- 7-8세 반의 경우, 감정 언어와 표정 짓기를 마무리 활동으로 수행하며, 아동들의 감정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한다.

7. 기대 효과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아동의 문해력 증진 및 자기표현능력 증진
- 아동의 도서관에 대한 친밀도 높이기
- 가족 단위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방과 후 돌봄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잠재력
- 안전하게 관리되는 새로운 의미의 놀이터로서의 도서관
- 아동들이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며 사회적 능력 함양

결론

"안녕, 나의 마음아!" 프로그램은 5-8세 아동의 감정언어 문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획된 발전된 형태의 도서관 프로그램이다. 아동들은 그림책과 연극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배운다.

더불어,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지역사회 내 가족 단위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은 방과 후 돌봄 공간으로서

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아동들에게 안전하게 관리되는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아동들의 문해력과 자기표현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안녕, 나의 마음아!"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감정언어 문해력을 키우고 도서관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언 및 기대효과

팀 헤이하이는 본 탐사를 통해 도서관이 단순히 아동 대상의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목적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다목적 프로그램 도입: 다양한 연령층과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도서관 이용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 및 활동을 제공하여, 도서관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다.

인식 전환 캠페인: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닌,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임을 알리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한다.

자원봉사자 활동 강화: 자원봉사자들이 단순 데스크 관리, 책 관리에서 벗어나 각종 프로그램의 진행요원으로서도 더 확대된 역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 통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 : 국내에는 전국의 작은도서관을 한 데 모아 프로그램 운영 일정이나 상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분산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피로를 주고 작은 커뮤니티를 가진 곳은 자연히 사용자의 시선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의 OBA는 모든 OBA 소속 도서관을 한 데 묶어 아이들이 거주하는 공간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쉽게 계획하고 운영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Refine by results

Where

- OBA Banne(178)
- OBA Bijmerplein(205)
- OBA Forest and Lommer(85)
- OBA Buitenveldert(274)
- OBA CC Amstel(81)
- [more](#)

When

- Today(27)
- Tomorrow(14)
- Next week(104)
- Next month(422)
- After 1 month(2471)

Age

- Adults(804)
- 15-18 years(82)
- 12-15 years(93)
- 9-12 years(109)
- 6-9 years(289)
- 4-6 years(297)
- 0-4 years(189)

Costs

- Free(2705)
- With a discount(2)
- For a fee(29)

Type of activity

- Consultation Hour and Walk-in(1102)
- Reading aloud(441)
- Workshop and Course(295)
- Performance(27)
- Exhibition(10)
- Lecture(7)
- Debate(2)

Theme

- Learn Dutch(1113)
- Reading and Literature(229)
- Computer(165)
- Art and Culture(134)
- Work and Income(39)
- [more](#)

Keywords

- Basic Skills(979)
- Live and learn(975)
- Digital(725)
- Help with Digital(706)
- Practice hour(542)
- [more](#)

Planner

Showing 1 - 10 (of 2878)

fr
02
aug**Digital HelpView**

From 10:00 to 17:00 | Every week | OBA Reigersbos

Come by for your questions about the digital government (IDO), internet, email, and your computer, tablet or smartphone.

[Details ►](#)fr
02
aug**Practice hourView**

From 10:00 to 17:00 | Every week | OBA Reigersbos

Do you want to practice with language, computer, internet, arithmetic or money? Come to the free Practice Hour in the OBA. A supervisor will help you on your way.

[details ►](#)fr
02
aug**Digital HelpView**

From 10:00 to 12:00 | Every week | OBA Osdorp

Come by for your questions about the digital government (IDO), internet, email, and your computer, tablet or smartphone.

[Details ►](#)fr
02
aug**Practice hourView**

From 10:00 to 12:00 | Every week | OBA Osdorp

Do you want to practice with language, computer, internet, arithmetic or money? Come to the free Practice Hour in the OBA. A supervisor will help you on your way.

[details ►](#)fr
02
aug**Senior activityView**

From 11:00 to 13:00 | Every week | OBA Spaarndammerbuurt

Changing activities for seniors, be surprised!

[details ►](#)fr
02
aug**Practice hourView**

From 13:30 to 17:00 | Every week | OBA Banne

Do you want to practice with language, computer, internet, arithmetic or money? Come to the free Practice Hour in the OBA. A supervisor will help you on your way.

[details ►](#)fr
02
aug**Practice hourView**

From 13:30 to 17:00 | Every week | OBA Mercatorplein

Do you want to practice with language, computer, internet, arithmetic or money? Come to the free Practice Hour in the OBA. A supervisor will help you on your way.

[details ►](#)fr
02
aug**Digital HelpView**

From 13:30 to 17:00 | Every week | OBA Banne

Come by for your questions about the digital government (IDO), internet, email, and your computer, tablet or smartphone.

[Details ►](#)

<도서관의 위치, 일자, 나이대별 참여 가능 프로그램 분류, 가격,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제, 키워드 별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다.>

위의 제언들은 도서관의 다각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이라는 장소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에게 도서관에 꾸준히 올 수 있는 습관의 시작이 된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구성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맞벌이 혹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시민의식을 강화한다.

그 어떤 사회적 계층의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서의 도서관으로 확장될 경우,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건강한 토의의 장이 될 수 있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도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문학에 대한 심도 깊은 관심을 유도하여 다양한 가치를 탐구하도록 한다.

4. 참고문헌

- 권순궁. (2014). <콩쥐팍쥐> 서사의 문학치료학. 문학치료연구, 30(0), 43-72.
- 김균태. (2013). `쥐(두더지) 혼인담`의 서사적 의미와 문학치료 활용. 문학치료연구, 26(0), 9-37.
- 김선, 김희진, 안재희, 조은상. (2023). 설화 <아기장수>를 활용한 부모성장 문학치료 사례연구. 문학치료연구, 68(0), 185-240. 10.20907/kslt.2023.?68.185
- 김수연. (2015). <내 복에 산다>의 문학치료적 해석 -`내 복` 연기성과 관계의 선업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5(0), 7-33.
- 김영애 (Young Ae Kim),and 김춘경 (Choon Kyung Kim).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또래 수용도가 낮은 아동의 사회기술과 마음읽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2 (2012): 47-71.
- 김은하 “꼭 필요한 작은도서관의 역할 모델 연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2023)
- 김은하, 미래에 꼭 필요한 작은도서관의 역할 모델 연구
(<http://smalllib.org/archive/policy/102/?p=1>)
- 김정애. (2010). 이어쓰기 활동을 통해 본 <문둥이 처녀와 동침한 총각>의 문학치료적 활용 가능성. 문학치료연구, 16(0), 227-260.
- 김정애. (2022). 자기통제 문제를 중심으로 본 <나랏돈 나오는 그림>의 특성과 문학치료적 활용 가능성. 문학치료연구, 62(0), 197-225. 10.20907/kslt.2022.62.197
- 김춘경. (2016). 애니메이션 동화를 활용한 조망수용중심 문학치료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한문학치료연구, 6(1), 19-42.
- 김현영. (2010). <금방울전>을 활용한 문학치료의 실제 : `자녀서사`의 진단과 치료. 문학치료연구, 16(0), 157-200.
- 나지영. (2009). 문학치료학의 `자기서사` 개념 검토. 문학치료연구, 13(0), 35-58.
- 류미향 (Mi Hyang Ryu),노은호 (Eun Ho Noh),and 김춘경 (Choon Kyung Kim). "인지행동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3 (2012): 237-256.
- 박미리 (Park Mi-ri). "자기 이야기 활용 연극치료 방법론." 문학치료연구 31.- (2014): 161-188.
- 박선희 (Sun Hee Park).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문학교육 프로그램 적용: "스토리텔

링 극화하기와 책 읽어주기"의 의미."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1.2 (2010): 91-119.

박재인 (Jae In Park). "문해력이 부진한 아동의 서사능력에 대한 문학치료적 고찰." 겨레어문학 43.- (2009): 53-88.

박재인. "문학치료 상담에서 나타나는 문학행위 반복 현상과 ‘직면’의 치료적 효과." 문학치료연구 66.- (2023): 9-45.

박재인. "문학치료학 서사이론의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 인문학연구 0.42 (2020): 7-42.

신동훈 (Shin Dong-hun). "문학치료를 위한 서사 분석 요소와 체계 연구." 문학치료연구 49.- (2018): 9-89.

이문학. (2023). 출판 생태계로서 지역 작은도서관의 발전 방안 연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9(1), 51-82.

이조은,and 조희숙. "도서관에 간 유아들의 이야기: ‘S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9.5 (2015): 301-325.

이종선, 김춘경. (2013). 동화구연을 통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한문학치료연구, 3(1), 1-25.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https://www.smalllibrary.org/main/index>

정기원 (Ki Won Chung). "학술연구 : 작은도서관 운영의 현 단계와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 도서관 65.- (2012): 17-37.

정운채. (2010). 분노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과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14(0), 305-326.

제민경. "발달적 관점에서의 문해력 교육 실행 방향 - 초등학교 교육 방향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 -.184 (2024): 35-71.

조은상. (2020). 문학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개인문학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 문학치료연구, 57(0), 47-82. 10.20907/kslt.2020.57.47

진현숙, 박찬부. (2011). 정서중심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우울, 정서지능,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한문학치료연구, 2(1), 101-122.

최남미, 조은상. (2023). 강박사고 및 행동을 보이는 아동 대상 문학치료 사례연구 : 손뜨개 인형을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66(0), 81-124. 10.20907/kslt.2022.66.81